

#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연구책임자 | 임순희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

본 서에 수록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당 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 목 차

I. 서론	1
1. 연구목적과 방법	3
2. 국제규약과 북한 법에서의 교육권 관련 내용	5
3. 교육권의 주요개념과 분석틀	8
II. 북한의 학교교육체제와 교육내용 및 방법	11
1. 학교교육체제	13
2. 교육내용 및 방법	14
III. 학습활동의 자유권 실태	33
1. 의무적 조직생활	35
2. 청소년 노동수행	43
IV. 교육내용의 선택권 실태	51
1. 이상화교육	55
2. 사상교육	61
V. 학습기회의 보장권 실태	71
1. 교육의 기회균등	73
2. 무상의무교육	80
3.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활용 가능성 및 용이성	87

VI. 경제난 이후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89
1. 의무적 조직생활과 청소년 노동수행	91
2. 이상화 및 사상교육	92
3. 교육의 기회균등	94
4. 무상의무교육	95
5.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활용 가능성 및 용이성	97
VII. 결 론	99
참고문헌	105
최근 발간자료 안내	109

## 표 목 차

<표 II-1> 소학교 교육과정 .....	19
<표 II-2> 중학교 교육과정 .....	21



# I

## 서론



## 1. 연구목적과 방법

교육권<sup>1</sup>은 인간의 기본권리이며, 다른 모든 인권을 행사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sup>2</sup> 이와 같은 교육권의 의의와 보편성, 교육의 의의와 지향점, 교육권 구현을 위한 이행조건 등에 관해서는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하 국제인권A규약),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이하 아동권협약)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북한도 사회주의헌법에서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하여 보장된다.”(제73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북한은 선진적 교육제도와 인민적인 교육시책에 의해 모든 공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완전하게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sup>3</sup> 또한 북한은 1977년 발표한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교육권과 함께 공민의 교육의 의무를 밝힌바 있으며, 특히 학교의무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학교의무교육이다.<sup>4</sup>

---

<sup>1</sup> 이 글에서 ‘교육권’이란 “교육받는 것을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통일연구원, 『2005년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p. 194.

<sup>2</sup> <[http://portal.unesco.org/education/en/ev.php-URL\\_ID=9019&URL\\_DO...](http://portal.unesco.org/education/en/ev.php-URL_ID=9019&URL_DO...)>.

<sup>3</sup> 북한의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 보고서” (2002. 4. 9) 참조.

<sup>4</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400.

위에서와 같은 국민의 교육권과 교육의 의무는 1999년 제정된 북한의 ‘교육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국민의 중등일반교육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제12조), 11년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제13조), 교육받을 나이의 어린이 파악 및 취학,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의 어린이 취학 보장 의무(제14조), 외진지역 어린이와 불구어린이들에 대한 지방정권기관의 중등의무교육 보장 조치(제15조), 무료교육(제16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교육권 실태는 위에서와 같은 국·내외 법조문 및 국제협약 조항들과 현격한 괴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중반 이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심화와 함께 교육 조건 및 환경이 매우 열악해지고 학교운영이 파행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무엇보다도 청소년의 교육권에 대한 위협이 보다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를 테면 교육기자재 파손과 부족, 교육시설 낙후, 굶주림과 식량구입으로 인한 학생들의 결석과 교원들의 비정상적 근무 등으로 인해 학교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교육열과 교육수준이 현저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 아래 이 연구는 학교교육을 중심으로 북한의 청소년 교육권 실태를 분석, 논하며, 이를 통해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나아가 북한인권 관련 정책수립에 있어 기초 자료로써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한 내용분석이며 자료내용의 검토 및 보완을 위해 본 연구자에 의한 10여 명의 새터민 심층면접결과를 활용하기로 한다. 문헌자료로는 기존의 새터민 증언·수기 모음을 비롯해 관련 북한원전과 선행연구결과물들을 활용하며, 새터민

면접에는 북한에서의 전직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연구는 북한의 11년제 의무교육대상 청소년(유치원 높은 반 1년을 제외한 소학교와 중학교학생)들의 교육권을 중심으로 행해진다.

## 2. 국제규약과 북한 법에서의 교육권 관련 내용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약과 북한 법에서의 교육권 관련 조항들을 근거로 하여 고찰하기로 한다.

먼저 세계인권선언은 제26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권을 가지며, 교육은 최소한 초등기초단계에서는 무상이어야 하고 초등교육은 의무적이어야 하며, 고등교육도 능력에 따라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개방되어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교육권의 보편성과 초등교육의 무상성 및 의무성, 고등교육의 기회균등성 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제26조 제2항에서는 교육의 목표와 관련해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국제인권A규약은 제13조 제1항에서 교육권의 보편성과 교육의 목표를 규정하고 있는바, “누구에게나 교육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고 인권과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경심을 굳건하게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국제인권A규약 제13조 제2항은 무상 의무 초등교육과 기회균등한 중등·고등교육 등에 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은 의무적인 동시에 모든 사람이 무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둘째 기술 및 직업 중등교육을 포함한 중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널리 받을 수 있는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셋째 고등교육은 모든 적절한 방법을 통해, 능력에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그 기회가 주어질 것, 특히 무상교육의 점진적 도입이 이루어질 것, 넷째 초등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그 전 과정을 마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될 수 있는대로 광범하게 기초교육이 장려 또는 강화될 것, 다섯째 각급 학교제도의 발전이 적극 추구하고 적절한 장학제도가 설치되며 교원의 물질적 조건이 부단히 개선될 것 등이 그것이다.

아동권협약의 교육권 조항은 보다 더 구체적이다. 먼저 아동권협약 제28조 제1항은 당사국이 “아동의 교육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며 점진적으로 그리고 기회균등의 기초 위에서 이 권리를 달성하기 위하여” 취해야 할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초등교육은 의무적이며, 모든 사람에게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 둘째, 일반교육 및 직업교육을 포함한 여러 형태의 중등교육의 발전을 장려하고 이에 대한 모든 아동의 이용 및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무료교육의 도입 및 필요한 경우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넷째, 교육 및 직업에 관한 정보와 지도를 모든 아동이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섯째, 학교에의 정기적 출석과 탈락률 감소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또한 아동권협약은 제28조 제2항에서 “당사국은 학교 규율이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하고 이 협약에 부합하도록 운영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학교규율로 인한 교육권 침해방지를 강조하고 있다. 제28조 3항

에서는 교육 관련 사항에 있어서의 국제협력을 규정하고 있는바, “당사국은 특히 전 세계의 무지와 문맹의 퇴치에 이바지하고 과학적·기술적 지식과 현대적 교육방법에의 접근을 쉽게 하기 위하여 교육에 관련되는 사항에 있어서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이 문제에 있어서 개발도상국의 필요에 대하여 특별한 고려가 베풀어져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외에도 아동권협약은 제29조 제1항에서 아동교육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첫째,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둘째, 인권과 기본적 자유 및 국제연합헌장에 규정된 원칙에 대한 존중의 진전, 셋째, 자신의 부모, 문화적 정체성, 언어 및 가치 그리고 현 거주국과 출신국의 국가적 가치 및 이질문명에 대한 존중의 진전, 넷째, 아동이 인종적·민족적·종교적 집단 및 원주민 등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해, 평화, 관용, 성의 평등 및 우정의 정신에 입각하여 자유사회에서 책임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준비, 다섯째,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의 진전 등이 그것이다.

북한은 ‘사회주의헌법’과 ‘교육법’에서 교육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주의헌법 제73조는 “공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선진적인 교육제도와 국가의 인민적인 교육정책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규정은 아니나 법 이상의 효력 내지 영향력을 갖는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는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 …의무교육에서 기본을 이루는 것은 학교의무교육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육을 받을 의무는 교육법에서 법조문화되어 있는바, 교육법 제1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민은 중

등일반교육을 받을 의무와 무료로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법 제13조는 “공민은 노동할 나이가 되기까지의 기간에 중등일반의무교육을 받는다. 중등일반의무교육학제는 11년이다”라고 하여 11년 의무교육학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14조는 학령에 이른 어린이의 취학과 관련해, “지방정권기관과 교육기관은 해당 지역에서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를 빠짐없이 장악하여 취학시켜야 한다. 교육받을 나이에 이른 어린이의 부모 또는 보호자는 어린이의 취학을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외에도 교육법은 외진지역 어린이와 장애어린이의 교육과 관련해, “지방정권기관은 깊은 산골, 외진섬 같이 주민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어린이와 맹, 농아같은 불구어린이의 중등의무교육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5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에서는 무상교육을 규정하고 있는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교육은 무료이다. 교육기관은 학생 또는 그의 부모나 보호자로 부터 입학, 수업, 실습, 견학, 답사와 관련한 요금을 받을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 3. 교육권의 주요개념과 분석틀

교육권의 개념과 관련한 국내외적 논의는 다양하다. 기본적으로는 교육권과 학습권의 개념 규정도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교육권의 개념 자체에 대한 것은 논외로 하며, 이 연구와 관련해 가장 적합한 선행 연구결과물을 통해 교육권의 주요 개념들을 살펴보고, 이 개념들을 원용하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를 분석하기로

한다.

관련 연구결과물<sup>5</sup>에서는 학습권<sup>6</sup>의 내용을 다음의 다섯 가지로 개념화하고 있다.

첫째, ‘학습활동의 자유’이다. 이는 개인이나 집단의 학습활동이 금지되거나 제한 받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학습활동은 누구에게나 언제나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하는바, 학습활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학습을 지배집단의 교육에 종속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학습활동의 자유에 대한 통제는 학습의 제한과 동시에 학습의 강요도 포함한다.

둘째, ‘학습기회의 보장’이다. 이는 사회와 국가가 풍부한 학습기회를 만들어 양적·질적으로 보다 나은 학습기회를 보장하며, 개인이나 집단이 이러한 학습기회를 제공받는 권리를 뜻한다. 학습기회의 제공에 있어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학습장이며, 학교 외에도 다양하고 풍부한 학습 기회가 마련될 수 있다. 또한 학교 외의 학습기회가 공급되려면 교육활동이 자유화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야 한다.

셋째, ‘교육선택의 권리’이다. 이는 교육받을 개인이 학교 및 교과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학교 및 교과의 선택권은 기본적인 것이며, 교육선택권은 학교제도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교육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넷째, ‘교육에 관한 결정과정에서의 참여권’이다. 이는 교육에 관한 주요결정과정에 학습자들이 적극 참여하여 교육에 관한 논의의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는 학교운영

---

<sup>5</sup> 김신일, “학습권 개념내용과 교육학의 새 연구과제,” 『평생교육연구』, 제1권 제1호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 1995), pp. 26~29 참조.

<sup>6</sup> ‘학습권’과 ‘교육권’의 개념을 둘러싼 논의가 있으나 이 글에서는 두 용어를 “교육받을 권리 내지 배울 권리”라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한다.

기구에서의 학부모대표 참여, 대학이사회에서의 학생대표 참여 등으로 구현되기도 한다.

다섯째, ‘지식과 사상창출의 자유’이다. 이는 배울 것을 학습자 스스로가 선정하며, 비판적 학습을 통해 기존의 지식과 사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창조적 학습 활동의 권리를 뜻한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한 국제규약과 북한법에서의 교육권 관련 조항을 근거로 하고 관련 연구결과물에서의 학습권 구성요소들을 인용하여, 이 글에서는 ‘학습활동의 자유권’, ‘교육내용의 선택권’, ‘학습기회의 보장권’ 등으로 범주화하여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를 분석, 논하기로 한다.

첫째, ‘학습활동의 자유권’ 실태는 의무적 조직생활, 청소년 노동수행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교육내용의 선택권 실태는 북한청소년들에 대한 특정 학습의 강요라는 관점에서 소학교와 중학교의 현행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교육권 침해 양상 및 정도를 분석, 논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교육내용의 선택권’은 특정 교육내용의 선택, 또는 거부 가능성 여부를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한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육내용의 선택권은 당·국가의 정책적 의도에 따라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접근방법은 의미가 없다.

셋째, ‘학습기회의 보장권’ 실태는 교육의 기회균등과 무상의무교육,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활용 가능성 및 용이성 등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는 위와 같은 세 가지 범주로 나누어 주로 침해 상황을 중심으로 분석, 논하며 특정 부분의 개선여부에도 주목하여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 II

# 북한의 학교교육체제와 교육내용 및 방법



## 1. 학교교육체계

북한의 기본학제는 유치원 2년, 소학교 4년, 중학교 6년, 대학교 3~5년으로 되어 있으며,<sup>7</sup> 대학원 과정에 해당하는 연구원 3년 및 박사원 2년이 있다. 또한 일반학제와 달리 학제상 구분이 없는 ‘혁명학원’(만경대·남포혁명학원<sup>8</sup> 등)과 예·체능학교 등 특수목적의 교육체계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혁명학원은 사회주의혁명의 후계자 양성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으며, 혁명 유자녀들이 다니는 교육기관이다. 학생들은 조기 선발되며 일반학교체계와는 달리 정해진 진학 절차 없이 같은 학교를 11년 동안 다닌다.

예체능 교육 대상은 유치원이나 소학교에서 별도로 선발되며 특수교육과정을 제공받는다. 특히 예체능 분야의 교육기관은 소학교부터 중학교까지 계속해서 연계되어 있는데 이후 전문학교와 정규대학까지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북한의 재능교육은 집중적이면서도 지속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sup>9</sup>

북한의 특수목적 교육은 외국어 분야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중등단계에서는 6~7년제의 외국어학원이 평양을 비롯한 도 단위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교육대상은 소학교에서 선발되며 집중적인 외국어 교육을 받는다. 또한 과학기술부문의 우수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된 제1중학교도 특수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제1중학교는 1984년 9월 평양에 처음 설립된 이래 현재에는 시(구역)·군까지 확대, 신설되어 그 수

<sup>7</sup> 북한은 2002년 9월 1일 이후 초등교육기관인 ‘인민학교’를 ‘소학교’로, 중등교육기관인 ‘고등중학교’를 ‘중학교’로 각각 명칭을 변경하였다.

<sup>8</sup> 특히 남포혁명학원은 “사회와 집단을 위해 살다가 생을 마친 열사자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이라고 한다.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1월 8일.

<sup>9</sup>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p. 39.

가 2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전반적인 교육체제는 주요 교육정책을 입안하고 그 집행과정을 지도·감독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산하 과학교육부의 통제 아래에 있다. 내각의 교육성은 행정적 집행기관으로서 당이 결정한 교육정책의 집행과 기타 교육행정을 담당하며, 교육성 산하의 고등교육부와 보통교육부가 각급 학교의 교육업무를 지휘, 감독한다.

한편 교육에 대한 제도화된 당적통제는 일선학교체계에서도 이루어지는바, 학교의 교장보다는 학교 당위원회 위원장인 (교무)부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한다. 이를 테면 학교장은 학교의 책임자로서 행정과 재정을 총괄하는 데 대해 (교무)부교장은 교원들의 조직생활을 관리하며 교수교양사업과 사상교양사업을 담당한다. 부교장은 과정안이 교수요강에 따라 정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통제하며 학교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학교장과 토의하여 주 계획을 교원 등에게 알려주고 매일 일과를 제시하여 준다.<sup>10</sup>

## 2. 교육내용 및 방법

### 가. 내용

북한이 표방하는 청소년정책의 목표는 모든 청소년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란 다른 무엇보다도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여기는 참된 인간”<sup>11</sup>을 말한다고

---

<sup>10</sup> 위의 책, p. 146.

할 때, 북한 청소년정책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청소년들의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있다고 하겠다. 이른바 ‘주체형의 인간’의 성격에서 핵을 이루며 그의 풍모를 규정하는 데서 기본이 되는 것은 수령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sup>12</sup>인바, 북한 청소년정책의 목표인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의 육성은 궁극적으로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북한 청소년정책의 목표와 궁극적인 지향점은 사회주의 교육학의 기본원리로서 구체화되어 있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공산주의화하는 것”이며, “사회주의교육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은 혁명의 교대자들인 새세대들을 열렬한 혁명가, 공산주의자로 키워내는것”<sup>13</sup>이다. 또한 이러한 기본원리를 구현하기 위해 북한은 새세대들을 유치원과 학교시절부터 혁명적으로, 공산주의적으로 교육교양하며, 각급 당 조직들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강화하여 모든 청소년들을 당과 수령에게 끝없이 충실하고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 혁명가로 키워야 할 것을 역설한다.

북한에서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를 구현하는 기본 단위는 학교이다. 학교의 사명은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에 기초하여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며 민족간부를 양성하는데 있다.<sup>14</sup> 북한은 학교를 일컬어 “혁명화의 본거지”라고 하며, “학교들에서는 모든 교육환경을 학생들에게 당에 대한 충실성을 키워주고

<sup>11</sup> 김정일, 『주체문화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113.

<sup>12</sup>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153~164 참조.

<sup>13</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367.

<sup>14</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408.

당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깊이 체득시키며 그들의 혁명의식을 높 이는데 이바지할수 있도록 꾸려야 한다.”<sup>15</sup>고 강조한다.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9조)에 따르면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 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 등을 지향 목표로 한다. 그러나 교육목표와 관련해 북한 사회주의 헌법은 “국가는 사회 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후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투쟁 하는 견결한 혁명가로, 지덕체를 갖춘 공산주의적 새 인간으로 키운 다”(제43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육법에는 “교육기관은 학생 들에게 건전한 사상과 도덕, 깊은 지식을 주고 그들이 튼튼한 체력과 풍만한 정서를 지닐 수 있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제29조) 라고 명시되어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바,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 와 이를 구현하는 학교의 사명, 그리고 교육목표 관련 법조문이 시사 하고 있듯이 북한의 학교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첫 번 째 내용은 정치사상교육이며 인류보편적인 가치와 지식, 인격함양의 교육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다.<sup>16</sup>

북한문헌을 통해 보면 정치사상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들 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당정책교양과 혁명전 통교양 강화에 역점을 둔다. 또한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은 당에 대한 충실성을 키우는 데 기본을 두고 진행한다. 정치사상교육에서는 계급교양, 집단주의 교양, 노동애호정신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정신교양, 사회주의적준법사상교양, 공산주의

---

<sup>15</sup> 위의 글, p. 410.

<sup>16</sup> 이와 관련해 “북한의 사회주의 교육제도가 제국주의 식민지 연속에서 벗어나 독자 적인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이룩해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 에서보다도 더욱 사상의 요새로서 이념을 선도할 교육은 필연적으로 중시될 수밖에 없다”라는 주장이 있다. 강순원 지음, 『평화·인권·교육』(서울: 한울아카데미, 2000), pp. 144~145.

도덕과 사회주의생활양식교양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다루어진다.

교육내용의 두 번째는 과학기술교육이다. 과학기술교육에서는 일반지식과 전문지식을 가르치며, 학생들에 대한 중등일반지식교육은 전반적11년제 의무교육체계를 통하여 실시된다. 과학기술교육은 철저히 당정책화 해야 하는바, 모든 과목의 교수내용을 당정책으로 일관시키고 구체적인 현실과 결부시켜 진행해야 한다.

교육내용의 세 번째는 체육교육이다. 체육교육의 사명은 학생들의 체력을 증진시켜 이들을 노동과 국방에 튼튼히 준비시키는 데 있다. 북한은 특히 신체발육이 가장 왕성한 시기의 학생들을 교육하는 초등학교들과 중등학교들에서 체육교육을 강화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체육교육 강화와 관련해 북한의 초·중등학교에서는 ‘업간체조’, ‘집단달리기’, ‘집단체조’, ‘체육대회’ 등 다양한 체육활동이 진행된다. 이와 같은 체육활동들 가운데 북한은 특히 청소년들이 집단체조 공연을 통해 조직성, 규율성, 사상성, 예술적 소양을 구현하고 있으며, 이는 곧 청소년들에 대한 올바른 교육교양사업의 성과라고 자부한다.<sup>17</sup> 그러나 집단체조로 인해 학생들의 수업부족, 체력소모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정치사상교육, 과학기술교육, 체육교육은 북한의 초·중등교육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교과목으로 세분화·구체화된다.

먼저 소학교 4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원수님 어린시절’,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어린시절’,<sup>18</sup> 공산주의도덕, 수학, 국어, 자연, 위생, 음악, 체

<sup>17</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 424 참조.

육, 도화공작 등 11과목을 배우도록 편성되어 있다<sup>19</sup>(〈표 II-1〉 참조). 주당 수업시간은 국어, 수학, 자연, 체육, 음악, 도화공작의 순이고,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이상화 관련 과목이 각각 주당 1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화 관련 과목들을 하나로 하여 주당 3시간씩 배정된 것으로 본다면 김일성일가 이상화 관련 과목은 국어, 수학 다음으로 교육시간이 할애되어 있다. 또한 전 학년에 매주 1시간씩 배정되어 있는 『공산주의도덕』(이하 『사회주의도덕』)<sup>20</sup> 교과서의 주요 지도내용에도 김일성·김정일 이상화, 김정숙·김형직·강반석 등 일가의 이상화가 포함된다.<sup>21</sup>

<sup>18</sup> 1998년 말부터 1999년 4월에 걸쳐 유치원 높은반과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들에서 김정숙 혁명역사 과목 교수가 전반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sup>19</sup>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pp. 186~187 참조.

<sup>20</sup> 2004년에 『사회주의 도덕』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sup>21</sup>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pp. 89~98 참조.

<표 II-1> 소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구 분	학년 학기별 수업주수 및 주당 수업시간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3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어린시절		1	1	1	1
4	사회주의 도덕		1	1	1	1
5	수 학		5	5	6	6
6	국 어		8	8	7	7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1	1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화공작		1	1	1	1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 186의 <표 6-3>을 전직교원이었던 새터민 여성 ○현○의 증언<sup>22</sup>을 반영하여 재작성

중학교 6년 동안에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활동』,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력사』,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니 혁명활동』, 사회주의도덕, 현행 당 정책, 국어, 문학, 한문, 외국어, 력사, 지리, 수학,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제도, 컴퓨터, 실습(남/여) 등 23개 과목이 편성되어 있다<sup>23</sup>(<표 II-2> 참조).

<sup>22</sup>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1월 8일.

<sup>23</sup>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p. 186~189 참조.

김일성·김정일 ‘혁명활동’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에 걸쳐 주당 각각 1시간씩 배우며,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김일성·김정일 혁명 역사를 주당 각각 2시간씩 배운다. 김정숙 혁명역사는 중학교 4학년에 주당 1시간 배정되어 있다. 이로써 중학교 고학년(4~6년)과정에서는 김일성 일가 이상화 관련 과목에 대한 시간 할애가 저학년(1~3년)에서보다 2배 이상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학교 교육과정에서도 전 학년에 걸쳐 매주 1시간씩 김일성 일가의 이상화와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주의도덕 과목이 포함되어 있다.

<표 II-2> 중학교 교육과정

번호	교 과 명	학년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혁명활동	1	1	1	-	-	-
2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혁명력사	-	-	-	2	2	2
3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활동	1	1	1	-	-	-
4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 혁명력사	-	-	-	2	2	2
5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 어머니 혁명활동	-	-	-	1	-	-
6	사회주의 도덕	1	1	1	1	1	1
7	현행 당정책	-	-	-	1주	1주	1주
8	국 어	5	5	4	-	-	-
9	문 학	-	-	-	4	3	2
10	한 문	2	2	1	1	1	1
11	외 국 어	4	3	3	3	3	3
12	력 사	1	1	2	2	2	2
13	지 리	2	2	2	2	2	-
14	수 학	7	7	6	6	6	6
15	물 리	-	2	3	4	4	4
16	화 학	-	-	2	3	3	4
17	생 물	-	2	2	2	3	3
18	체 육	2	2	2	1	1	1
19	음 악	1	1	1	1	-	-
20	미 술	1	1	-	-	-	-
21	제 도	-	-	-	1	1	-
22	컴 퓨 터	-	-	-	2	2	2
23	실습(남·여)	1주	1주	1주	1주	1주	1주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 187의 <표 6-4>를 전직교원이었던 새터민여성 ○현○의 증언<sup>24</sup>을 반영하여 재작성

<표 II-2>의 현행 중학교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북한문헌에 따르면 1998년부터는 중학교단계에서도 논리학초보·심리학초보 과목들이 시작되었으며, 2000년대 들어 강화되는 추세라고 한다. 논리학교육의 강화는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능력을 높이며 교육의 전반적 수준을 한층 높이며, 학생들을 사업능력이 높은 유능한 혁명인재로 키우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sup>25</sup>

<표 II-2>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학교 교과과정에서 비중 있게 다루는 교과목의 하나는 외국어이다. 외국어교육의 비중이 보다 더 높아진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인바, 이때에 즈음하여 김정일이 발표한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1984. 7. 22)이 주요 계기가 되었다.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sup>26</sup>라는 제목의 이 서한에서 김정일은 종래와 같이 중등일반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사상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을 강화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특히 외국어교육의 강화는 “세계선진과학기술을 널리 받아들이고 과학분야에서 국제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기 위해 절대 필요하며, 기초과학교육과 외국어교육의 강화는 “전반적 11년제의무교육의 질을 높이는 기본고리”임을 역설하였다. 이 서한이 발표된 이후 중학교에서는 외국어 수업시간 수가 늘어났으며, 1985년부터는 소학교 4학년 학생들에게 외국어자모와 생활용 어들을 교육하였다.<sup>27</sup>

<sup>24</sup>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1월 8일.

<sup>25</sup> 『교원신문』, 2002년 5월 30일.

<sup>26</sup>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pp. 101~130.

<sup>27</sup> 조정아, “김정일시대의 북한 교육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제2호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4), p. 57.

북한학생들은 영어, 또는 러시아어 가운데 하나를 배운다. 그러나 학생 자신이 선택하기보다는 학교에서 배정해 주며, 학생들은 영어를 가장 선호하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실제에 있어서도 1990년대 이래 영어의 인기가 높아져 북한당국은 대부분의 중학교에서 영어를 외국어 과목으로 지정토록 하였다.<sup>28</sup>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중등교육과정에서 비중이 높아져가고 있는 또 다른 교과목은 컴퓨터이다. 컴퓨터교육은 1990년대 초부터 중학교에서 부분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90년대 후반에는 정규교과로 편입되어 현재 중학교 고학년(4~6)에 주당 2시간씩 배정되어 있다. 그러나 제1중학교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6학년 정규과정으로 컴퓨터 수업이 운영되어 자판 연습과 프로그램 작성 등의 교육을 실시하였던 것으로도 보인다.<sup>29</sup>

2000년대에 들어서 이래 세계화·정보화의 흐름과 IT산업의 열풍이 더욱 거세짐에 따라 북한은 학생들에 대한 컴퓨터교육을 보다 더 강화하는 추세이다. 무엇보다도 경제난 극복의 중대과제를 안고 있는 북한에게 있어 컴퓨터 교육 강화는 “21세기에 상응한 국가경제력을 다져 나가기 위한 필수적 요구”<sup>30</sup>로서 중시되고 있다. 또한 컴퓨터교육과 관련해 김정일은 조기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등·중등교육기관들에서부터 컴퓨터교육을 잘하여 젊고 유능한 프로그램전문가들을 많이 키워낼 것을 촉구한바 있다. 프로그램전문가들의 나이가 25세 이상이면 늦으므로 어려서부터 교육하여 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sup>31</sup>

북한은 컴퓨터교육(정보과학기술교육)과 수재교육을 연계하여 추

<sup>28</sup>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 187.

<sup>29</sup> 조정아, “김정일시대의 북한 교육정책,” p. 64.

<sup>30</sup> 『교원신문』, 2001년 2월 1일.

<sup>31</sup> 위의 글.

진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 학생소년궁전, 금성제1고등중학교와 금성제2고등중학교를 컴퓨터수재양성기지로 잘 꾸리고 수재로 키울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여 어릴적부터 컴퓨터를 전문적으로 배워 주도록 하여야 합니다”<sup>32</sup>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이와 같은 컴퓨터 조기교육 및 수재교육과의 연계방침에 따라 2001년에만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평양학생소년궁전, 그리고 금성제1고등중학교와 금성제2고등중학교의 각 학년에 컴퓨터 반이 개설되었으며, 특히 금성제1고등중학교 컴퓨터 강좌에는 1명의 박사, 4명의 학사가 교원으로 배치되기도 하였다.<sup>33</sup>

학교에서의 컴퓨터교육은 2002년 『로동신문』(10. 16)을 통해 김정일이 “교육사업에서 실리를 보장하고 실력본위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학교에서 컴퓨터교육, 수재교육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한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더 강화되는 계기를 맞기도 하였다.

## 나. 방법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사회주의교육 방법은 다음의 다섯 가지로 규정되어 있다.<sup>34</sup>

첫째, “깨우쳐주는 교수교양”이다.

이 방법은 학생들 자신이 능동적인 사고활동을 통하여 교수내용을 깨닫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자립성과 창발성을 적극 조장 발전시킨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특히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을 해설과 설복의 방법으로 할 것과 사상교양의 기본방법의 하

<sup>32</sup> 『교원신문』, 2001년 5월 10일.

<sup>33</sup> 위의 글.

<sup>34</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pp. 389~398.

나로서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를 강조한다. 또한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와 관련해서는 특히 ‘항일혁명선열’들의 모범으로 학생들을 감화시켜 교양하는 사업을 강화하며, 학생들 속에서 창조되는 긍정적 모범을 찾아내 일반화하여 모든 학생들이 그것을 학습과 생활에 구현하도록 할 것을 강조한다.

둘째,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이다.

이 방법은 학교교육에서 강의와 실험실습을 옹계 결합하여 학생들이 강의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의 것으로 충분히 소화하며 그것을 실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 방법에서는 특히 생산실습과 전공실습에 비중을 두고 있으며, 중등교육단계에서의 생산실습은 현대생산의 기초적인 기술지식과 기계설비, 노동도구를 다루는 기술기능을 습득시키는 방향에서 진행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학생들이 현실 속에서 생동하고 폭넓은 지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하여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들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사회문화교양기관, 공장, 기업소, 협동농장들에 대한 견학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조한다.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교육방법에서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과 관련해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다. 북한은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 갖는 의의는 학생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다고 한다. 또한 학생들의 생산노동은 교육에 도움이 되도록 조직할 것을 강조한다.

사회적실천의 가장 중요한 형태인 생산노동은 자연을 변혁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며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 힘있는 수단이다. 사람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자연과 사회를 인식하고 변혁하며 자신의 사상의식과 품모를 개조한다. 생산노동에서 유리되어 학업을 전문

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질적수준을 높이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능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로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참가시키는데서 교육학적요구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교육 일면에만 치우치면서 생산로동을 소홀히 하는 경향과 학생들을 생산로동에 지나치게 많이 참가시키는 경향을 다같이 경계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생산로동은 교육교양에 도움이 되도록 합리적으로 조직하여야 한다.<sup>35</sup>

셋째,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 강화”이다.

조직생활과 사회정치활동을 강화하고 이를 교수사업과 밀접히 결합하는 것은 청소년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 데 있어 의의가 있다고 한다.

조직생활 강화와 관련해 북한은 청소년 학생들이 조직생활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조직생활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학교 소년단·청년동맹 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높일 것을 강조한다. 또한 사회정치활동 강화와 관련해서는 학생들이 ‘당정책선전대’, ‘과학선전대’, ‘위생선전대’ 등 다양한 선전대를 조직하여 대중 속에서 당정책 해설, 과학기술지식·문화위생지식 등을 보급할 것과 위생근위대·녹화근위대 활동, 소년단림·사로청림 조성운동, 사회주의건설 지원운동 등 좋은일하기 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활동내용이 시사하는바, 사회정치활동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으로 규정되어 있다.

넷째,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이다.

<sup>35</sup> 위의 글, pp. 392~393.

이 방법은 사회교육이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교양하며 이들에게 과학기술지식과 문학예술지식, 체육기술을 보급하는 데 적극 이바지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북한은 이 방법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회교양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며 사회교양시설들과 선전교양수단들을 잘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방법은 학생소년궁전, 학생소년회관, 소년단 야영소, 도서관 등 사회교양시설들을 거점으로 한 정치시사강연, 과학토론회, 발표모임, 그리고 다양한 소조활동을 통해 구현된다. 또한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의 결합에 있어서는 가정생활과 사회적 환경의 중요성도 강조된다. 가정생활과 관련해서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의 혁명화와 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확립을 통해 가정생활 자체가 학생들에게 혁명적인 영향을 주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사회적 환경과 관련해서는 방송, 출판물, 영화 등의 내용을 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며 온 사회에 건전한 생활기풍을 확립하여 학생들이 사회에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다 교육·교양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학교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병진”이다.

학교 전 교육, 학교교육, 성인교육의 결합·병진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일생동안 끊임없이 교육하는 방도라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학교 전 교육은 학교교육의 기초를 닦는데 비중을 두어야 하는바, 유치원들에서는 혁명사상교양과 도덕교양을 기본으로 하면서 특히 1년 동안의 학교 전 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여 어린이들이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학교교육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의 교육인바, 학교교육의 기본과업은 자라나는 모든 새 세대들을 혁명적 세계관으로서고 현대적 과학기술을 가진 혁명인재로 키우는 것이라고 한다. 사

회주의건설에 참가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인 성인교육은 “일하면서 배우는 교육체제”로서, 교육과 생산노동의 결합이라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한편 1980년대 중반 이래 북한 교육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정치사상교양에 가장 비중을 두는 한편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국어와 컴퓨터 등 보다 실리적·실용적인 내용으로의 교육을 추구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방침 내지 방법을 제시, 구현해 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교육방법 개선이 중요한 이유는 21세기 정보산업시대가 그에 맞는 새로운 교육방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방법을 개선하는 것은 실력있는 혁명인재 육성의 중요 담보”<sup>36</sup>일뿐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한다.<sup>37</sup> 1980년대 중반 이래 위와 같은 취지 및 목적하에 새로운 교육방침 내지 방법으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수재교육’, ‘지능교육’, ‘실력본위교육’ 등이며, 2001년 4월 새 학년도가 시작되면서 도입된 ‘선택과목제’도 같은 취지의 교육방법 개선 차원에서 시도된 새로운 제도이다.

수재교육 및 양성은 당(김정일)의 인재중시방침에 따른 것이다. 김정일은 “사람은 교육에 의하여 수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수재형이 있으며 수재형을 잘 키워야 수재가 된다”<sup>38</sup>라고 하여 1960년대 말에 “넓은 사상 관점”이라고 비판받았던 ‘수재론’을 새롭게 공식화하였으며, 이에 근거하여 1984년 평양에 최초로 ‘제1고등중학교’를 설립하였다.

---

<sup>36</sup> 『교육신문』, 2005년 1월 27일.

<sup>37</sup> 『교육신문』, 2004년 1월 1일.

<sup>38</sup> 『교육신문』, 2005년 2월 24일.

북한이 과거 김일성의 ‘수재론’ 반대 입장을 번복하고 이전 시기까지 지속되어 온 평등주의적 교육관에 어긋나는 엘리트 교육기관을 설치한 것은 1960·1970년대의 자립적인 기술인력 양성정책의 문제점이 누적된 결과였다.<sup>39</sup>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기존의 정치사상 교육 중심의 평등지향적인 교육이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으로 수재교육이 공식화되고 조기 엘리트교육이 실시되기에 이른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당의 인재중시방침에 따른 수재교육의 공식화로 인해 학생들은 “공부만 잘 하면” 이른바 출신성분에 관계없이 엘리트 교육기관에서의 학습기회를 균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었는바, 이와 관련해 전직 교원이었던 한 새터민 여성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북한에서 80년대부터는 수재교육 시키잖아요. 영재교육 알지요? 고등중학교 교육, 그게 언제 나왔냐 하면 80년대 중반부터 나왔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 때 알고 신분에 관계없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은 1고중에 보내자 해서 그게 방책이 다 있는 거예요. …1고중 졸업하고 김책공대라던지 이과대라던지 그런데로 바로 가거든요. 그러니 거기 가기가 쉽지 않지요. 내가 아무리 머리가 좋다해도 수재가 되지 않으면 거기 못가요. 거기는 그저 신분에 관계없이 머리 좋은 아이들만 뽑아놓은 거야. 신분 타령 하다 보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때야 알고 시작한 거지요. 그게 1고중이야.<sup>40</sup>

수재교육 방침에 따라 북한은 소학교 4학년부터 우수학생을 선발하여 제1중학교에서 6년 동안 교육시킨 후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사범대학 등에 진학시킨다. 또한 북한은 김일성종합대학

<sup>39</sup> 조정아, “김정일시대의 북한 교육정책,” p. 58 참조.

<sup>40</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과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의 자연과학부문들에 수재학급을 만들고 교육연한을 실정에 맞게 정하여 제1중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대학 본과를 마친 다음 박사원에 들어가 수재교육을 중단 없이 받도록 체계화하였다.<sup>41</sup>

1984년 ‘평양제1고등중학교’ 설립에 이어 1985년에는 도소재지에 총 12개의 ‘제1고등중학교’가 설립되었으며, 1995년 7월, 김정일이 제1중학교를 더 늘릴 것을 지시함에 따라<sup>42</sup> 같은 해 9월 1일부터 ‘평양 모란봉제1고등중학교’가 평양시적인 수재학교로 전환되었고, 1996년 4월 새 학년부터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등에 ‘제1중학교’가 새롭게 개교하였다. 또한 1998년 11월 김정일이 모든 시·군에 제1중학교를 설립하고 대학에 갈 학생을 전문적으로 키워 낼 것을 지시하는 등, 교육사업에서의 실리주의를 재차 강조함에 따라<sup>43</sup> 모든 시·군에까지 수재학교가 설립되었다. 이와 같은 수재교육 방침은 현재까지도 일관되게 추구하고 있는바, 최근에 조선노동당중앙위원회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당창건 60돌에 즈음하여 발표한 공동구호에도 “수재교육을 강화하여 특출한 인재들을 더 많이 키워내자!”라고 지적되어 있다.<sup>44</sup>

최근 새로운 교육방침의 하나로 등장한 ‘지능교육’은 교육의 질을 높여 우수한 과학자·기술자를 양성하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정일은,

---

<sup>41</sup> 『교육신문』, 2005년 2월 24일.

<sup>42</sup> 최경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대학교육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가져온 위대한 령도(1),” 『교원선전수첩 1』 (평양: 교원신문사, 2003), pp. 17~18.

<sup>43</sup> 위의 글, pp. 17~18.

<sup>44</sup> 『교육신문』, 2005년 7월 14일.

새 세대들에 대한 지능교육, 과학기술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여기에 현시대의 우수한 과학자, 기술자후비를 체계적으로 키워내며 나라의 전반적과학자, 기술자대렬을 질량적으로 끊임없이 확대강화하는 기본담보가 있습니다.<sup>45</sup>

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문헌에 따르면, 지능교육은 사람들이 지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 교육으로서 여기에는 지식을 습득시키는 것과 함께 사고력을 비롯한 지적능력을 키워주는 내용, 지식을 탐구하는 방법을 키워주는 내용들이 속한다. 즉 지능교육은 인식활동과 실천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그 활용과 관련된 두뇌의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이라는 것이다.<sup>46</sup> 북한은 최첨단과학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인민경제의 정보화가 실현되는 과학기술의 시대, 정보산업시대는 머리가 좋은 인재, 지능수준, 창조적 능력이 높은 인재를 요구하는바, 지능교육 방법을 널리 받아들여 학생들에게 사고위주의 창조력, 상상력, 활용능력을 적극 키워줌으로써 그들을 사회주의강성대국 건설에 지식과 실력으로 이바지하는 쓸모 있는 인재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sup>47</sup>

‘실력본위교육’도 최근 들어 크게 강조되고 있는 교육방침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교육사업을 개선강화하여 선군시대의 쓸모있는 혁명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서는 교육을 학생들의 실력본위로 하여야” 하며, “교육을 실력본위로 하여야 실력있는 인재후비들을 정확히 선발하여 교육할 수 있으며 그들을 정보산업시대의 쓸모있는 혁명인재로 키워낼수 있다.”<sup>48</sup>라고

<sup>45</sup> 『교육신문』, 2005년 1월 27일.

<sup>46</sup> 위의 글.

<sup>47</sup> 『교육신문』, 2005년 3월 31일.

<sup>48</sup> 『교육신문』, 2005년 2월 10일.

한다. 여기에서 교육을 실력본위로 한다는 것은 “교육사업의 모든 공정을 학생들의 실력위주의 공정으로 전환시켜 그들을 선군시대를 떠메고나갈 실력있는 혁명인재로 키워낸다는것”<sup>49</sup>을 말한다.

실력본위의 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북한당국은 “보통교육부문 학교들에서 5점 채점제를 정확히 적용하며 학생들의 성적을 원칙적으로 평가하는 엄격한 규율을 확립”<sup>50</sup>할 것을 시달한바 있으며, 이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성적을 학급·개인별로 공개하고 ‘최우등생소개판’을 통하여 공부 잘하는 학생들을 소개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2001년 4월 새 학년부터 도입된 ‘선택과목제’란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맞춘 과목별 교육방식이다. 이를 테면 농촌지역에서는 농업관련 과목 교육, 어촌지역에서는 어업관련 과목 교육, 산간지역에서는 임업관련 과목 교육 등, 지역별·지대별 특성에 맞는 과목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것이다. 북한은 선택과목제가 도입되면서 이에 맞춰 광업, 기계, 임업, 식료, 피복, 약전 등 6학년 교과서를 펴내기도 했다.<sup>51</sup>

---

<sup>49</sup> 위의 글.

<sup>50</sup> 『교육신문』, 2005년 2월 24일.

<sup>51</sup>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p. 189.

# III

## 학습활동의 자유권 실태



## 1. 의무적 조직생활

북한에서 집단주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생활의 기초이며, 이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북한 주민생활의 기본원리인 집단주의에 따라 북한 청소년들은 어려서부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집단적·사회적으로 양육되며, 소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일상적인 의무적 조직생활을 해야 한다. ‘조선소년단’(이하 소년단)생활과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이하 청년동맹)생활이 그것이다. 북한 청소년에게 있어 학습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의무적 조직생활이다.

북한은 집단주의교양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집단의 힘이 크다는 것을 숙지시킴, “조직과 집단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든다.”<sup>52</sup>고 한다. 이는 곧 청소년들로 하여금 집단속에 매몰된 획일화된 자아만을 의식하게 하며, 자신의 보다 나은 삶을 지향하는 독립적 인격체로서의 개인보다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만을 인식토록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오직 국가를 위해 존재하는 개인에게는 의무와 책임만이 요구될 뿐이며, 이러한 자아개념은 어떤 대의나 국가에 대한 광신과 맹목적인 헌신을 낳게 한다고 할 때,<sup>53</sup> 북한 청소년도 예외가 아니다. 이들 역시 조직생활을 통해 자신의 권리 주장보다는 오로지 국가와 사회, 집단에 대한 의무 수행에 익숙해지며, 궁극적으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삶의 의의 내지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 바꾸어 말하면 북한의 청소년들은 조직생활을 통해 ‘수

<sup>52</sup> 김일성,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 181.

<sup>53</sup> 에드워드 스튜어트, 김성경 역, 『문화차이와 인간관계』 (서울: 보성사, 1991), p. 98.

령에 대한 충실성'을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로 육성되는 데에서 비로소 존재 의의 내지 가치를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조직생활을 통해 청소년들을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 '당의 정치적 후비대',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로 육성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를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라고 한다.

어린이들을 사회의 주인으로,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로 키우기 위하여서는 그들을 어릴 때부터 문화적인 시설에서 집단적으로 보육교양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을 집단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것은 중요한 공산주의적시책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사회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집단적인 교육은 공산주의적 인간육성의 근본형식이다.<sup>54</sup>

교육은 인격의 완성과 인격존엄의식의 온전한 개발을 지향해야 하며(국제인권규약제13조1항), 아동교육은 아동의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의 계발을 지향해야 한다(아동권협약제29조1항). 그러나 집단주의에 따른 정치조직생활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은 교육에 의한 보편적 인격의 완성을 방해받으며,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최대한 계발에도 지장을 초래한다.

북한 청소년들은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며 혁명적교양의 학교”인 “혁명적 조직생활”을 통해 “높은 사상성과 강한 조직성을 가진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육성되는 것이 곧 인격의 완성을 의미한다. 또한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거듭 나기 위해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은 집단화·획일화·균일화 되어 있으며, 특정학습을 강요당한다. 이로써 이들 개개인의 고유한 인격, 재능 및 정신적·신체적 능력의 계발은 오

<sup>54</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pp. 406~407.

히려 최소화를 지향하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실례로 소년단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혁명임무는 학습이다. 학습에 있어 우선적인 것은 당 정책과 혁명전통 학습, 수령의 노작과 당 문헌에 대한 학습 등이며, 이 외에 정치지식과 군사지식, 일반과학지식을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은 사상교양을 위주로 하는 학습으로 인해 청소년 개개인의 고유한 인격 및 재능, 능력 계발을 위한 자유로운 학습활동은 직·간접적으로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생활이 초래하는 청소년 학습활동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사실상 조직생활 준비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이를 테면, 소년단입단 준비를 위한 교양에서는 먼저 소년단생활과 관련한 김일성교시와 김정일의 말씀을 학습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다음으로는 김정일이 어린시절 소년단생활에서 보여준 귀감자료를 통한 교양(김정일의 소년단생활 모범 따라 배우기), 소년단 입단과 관련한 노래 교양(노래 “김정일장군님 위하여 항상 준비”), 소년단 규약 학습(소년단원의 의무와 권리 학습), 소년단 상징학습, 입단절차와 방법에 대한 학습, 소년단입단선서학습 등을 하게 된다.<sup>55</sup> 이와 같이 북한 청소년들은 조직생활의 준비단계에서부터 특정 내용의 학습을 강요받는다.

또한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조직생활은 정규화·습성화되어 있으며, 그들은 언제나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일하고 학습하며 생활해야 하는바, 이와 같은 조직생활로 인해 학습활동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북한 청소년들의 자유로운 학습활동을 제약하는 또 하나의 요인은 노력동원 및 사회정치활동이다. 예를 들어 소년단원들은 학습을 열심히 하고 이를 실천활동과 결부하여 국가계획에 따른 노력동원 및 사

<sup>55</sup> 『교원선전수첩 2』 (평양: 교원신문사, 2003), pp. 87~89.

회정치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소년단원들의 노력동원 및 사회정치활동에서 대표적인 것은 ‘꼬마계획’ 선물운동, 외화벌이운동<sup>56</sup> 등을 비롯한 좋은일하기운동, 당정책선전대활동, 위생근위대활동, 녹화근위대활동, 소년단립조성운동, 선거가창대, 영예군인가족돕기 활동, 김일성·김정일 초상화 닦기, 김일성 동상 청소, 김일성 혁명역사 연구실 청소 등이 있다. 새터민들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과외활동은 나이 어린 소학교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육체적·심리적 부담을 주며, 이로 인해 공부를 소홀히 하거나 심지어는 학교 등교를 거부하려는 태도까지 보인다고 한다. 특히 군인들의 겨울 ‘배띠’용으로 보내기 위한 토끼가죽을 비롯해 파동·파철·파지·파비닐 등 폐품을 모아서 국가에 바치는 ‘꼬마계획’의 경우에는 한 해에 두 번 정도 1인당 할당량이 주어지며, 대략 토끼가죽 2~5매(마리), 파지 10kg, 동 1kg, 알루미늄 500g, 일정량의 인분 퇴비 등을 학교에 내야 하는데 이러한 일에 부담을 느낀 나머지 학교에 가기를 거부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sup>57</sup> 또한 폐품은 학생들에게 주워오라는 것이나, 주워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학생들은 탄광 등에 가서 몰래 가져오거나 전차 등에서 절단해 내는 등 의도하지 않은 절도행위를 범하는 예도 많다고 한다.

조직생활로 인한 학습활동의 자유 제한은 ‘생활총화’가 근원으로 작용한다. ‘생활총화’는 청소년의 조직생활을 주기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사상적 기제이다. 생활총화의 의의와 관련해 북한은 비판의 분

<sup>56</sup> 예를 들면 좋은 고사리, 줄당콩, 도토리, 달맞이꽃씨, 팥, 호박씨 등을 학생 1인당 1년에 1kg씩 학교에 낸다.

<sup>57</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9일;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소학교(1987~1991) 때에는 ‘꼬마계획10원’, 중학교(1991~1997) 때는 ‘꼬마계획20원’ 등 현금을 내기도 하였다. 새터민 ○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28일.

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조직생활만이 학생들을 정치사상적으로 단련하고 혁명적으로 교양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를 키우는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학생들 속에서 자기비판과 호상비판을 강화하며, 특히 ‘조직생활총화회의’를 높은 정치사상적 수준에서, 사상투쟁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sup>58</sup> 이에 따라 소년단과 청년동맹조직생활에서 북한 청소년들은 자기의 일과 생활에 대하여 매일 돌이켜 보고 “총화짓는” 것을 생활화·습성화해야 하며, 특히 사상위주의 정해진 학습활동에서 의식·무의식적 일탈행위가 없도록 유의한다.

생활총화는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수업을 마친 후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 진행한다. 진행은 주로 담임교사, 또는 학급 분단위원장이 진행하며, 학생이 한 명씩 자발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담임교사가 한 명씩 호명하여 진행하기도 한다. 총화방식은 대개 김일성 “교시”나 김정일 “말씀” 등에 비추어 한 학생당 5분에서 10정도씩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상호비판)을 한다. 비판내용은 학습장에 기록하며, 때로는 담임교사가 그 내용을 검열하기도 한다.<sup>59</sup> 상호비판은 대개 학교생활이나 농촌동원 등에서 있었던 일들과 관련된 내용이며, 비판한 학생이 “고치시오”라고 말하면 비판당한 학생이 “예”하고 대답하는 형식으로 행해진다. 또한 생활총화에서 상호간 비판하고 제기한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담임교사 선에서 처리한다.<sup>60</sup>

전직 교사였던 새터민 여성에 따르면, 조직생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며 비중이 큰 생활총화는 일종의 감시제도인바, 교사는 생활총

<sup>58</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p. 393.

<sup>59</sup>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sup>60</sup> 새터민 ○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14일.

화 시간에 아이들의 사상동향을 개인별로 파악하여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sup>61</sup> 따라서 상호비판을 통해 자신의 사상적 일탈행위를 지적, 비판당할 것을 우려해 학생들의 학습활동은 능동적·적극적이기보다는 수동적·소극적일 수밖에 없게 되며 학습활동의 범위도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게 된다.

아동권협약(제28조제2항)에 따르면 학교 규율은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되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청소년의 조직생활을 규율하는 생활총화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들의 존엄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

첫째,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생활총화를 통해 학생들은 자신에게 주어질 침묵을 인내하며 교사가 미리 결정하여 제시하는 의견을 일방적으로 수용하고, 정해진 시점에서 기대되었던 의견을 발언하도록 훈련된다.<sup>62</sup>

둘째, 불가피한 자기비판 및 상호비판을 위해 때로는 없는 사실을 조작해내거나, 진실을 은폐하도록 함으로써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성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토록 한다.

한 새터민 여성<sup>63</sup>은 조직생활에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생활총화였으며, 총화 때에 자기비판은 괜찮았으나 상대방 비판은 어려웠는바, 힘이 있고 잘 사는 아이들을 잘못 비판하면 후에 폭행 등의 보복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또한 사실상 권력 내지 경제력 등의 가족배경이 있는 아이들은 교사도 조심스럽게 대하기 때문에 상호비판의 대상으로 할 수도 없었으며, 따라서 상호비판은 학급에서 가장 “모서리취급”(따돌림)<sup>64</sup>을 당하는 힘없고 못사는 학생들에게 집중되었다

<sup>61</sup> 새터민 ○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14일.

<sup>62</sup>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서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4), p. 132.

<sup>63</sup> 새터민 ○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28일.

고 한다.

생활총화는 담임교사와 학급 소년단 간부인 분단위원장, 사상위원장 등이 교단에 앉아 비교적 긴장된 분위기에서 진행하며, 학생들은 자신이 지목되어 불량 학생으로 낙인찍힐까 두려워하는 편이다.<sup>65</sup> 그러나 생활총화가 매주 정기적으로 반복됨에 따라 학생들 사이에 긴장감이 약해져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한다. 이를 테면, 총화 전에 상호비판 상대, 비판내용 등을 서로 정해 놓고 비판을 하거나, 비판거리를 찾지 못해 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학습장에 기록하기도 한다는 것이다.<sup>66</sup> 이와 관련해 한 새터민 여성은 북한에서 가장 하기 싫었던 것이 학교에서 하는 생활총화였으며, 일주일에 2번씩 하는 생활총화가 (두렵기보다는) 매우 귀찮았다고 한다.<sup>67</sup>

한편 아동의 인간적 존엄성과 합치되지 않는 학교 규율은 조직생활의 군대식 규율에서도 엿볼 수 있다. 소년단원들 가운데 모범소년단원으로 선발된 일부는 ‘소년단야영소’<sup>68</sup>에 일정기간 입소하여 김일성과 김정일의 어린시절에 관한 학습을 비롯해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 참관, 사상교양, 체육활동 및 문화예술활동 등을 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소년단야영소’ 생활은 철저하게 군대식 규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청년동맹원들의 조직생활을 규율하는 또 하나의 사상적 기제는 이른바 ‘조직생활카드제’이다. 이는 소년단 때부터의 조직생활정형을

---

<sup>64</sup> 머리가 모자라고 공부 못하는 아이들, 성분이 나쁜 아이들에게 돼지, 닭대가리 등의 별명을 붙이고 놀리며 때리기도 한다.

<sup>65</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9일.

<sup>66</sup>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sup>67</sup>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sup>68</sup> 소년단야영소는 청소년들의 혁명성을 고취시키고 소년단의 조직생활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양 및 각 도에 설립된 소년단의 과외활동센터이다. 박성희, 『북한 청소년의 생활』 (서울: 공보처, 1995), p. 117.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제도를 말하며, 북한은 청년동맹원들의 조직생활에 대한 지도 강화를 위해 이를 활용한다. 조직카드에는 소년단조직생활 및 청년동맹조직생활에 대한 평가를 비롯해 학업성적, 품행, 취미와 소질 등에 관해 상세하게 기록하며, 조직원이 다른 조직에 가입하거나 당원이 되면 조직카드도 그의 소속처로 넘겨지게 된다. 이와 같이 조직생활 지도에서 계승성이 보장되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조직생활카드제의 의의 및 필요성과 관련해 김일성은,

사로청조직들은 매 사람마다 소년단 때부터의 조직생활 정형을 밝힌 카드를 만들어 그가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때에는 그곳 사로청조직에 보내주며 사로청생활을 하다가 당에 들면 당조직에 보내주고 직맹, 농근맹, 녀맹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넘겨주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소년단생활과 사로청생활을 거쳐서 장년으로 되는것만큼 앞으로 조직생활카드를 계통적으로 만들어두면 사람들을 료해하느라고 분주히 뛰어다닐 필요가 없게 될것입니다. …매 사람들의 조직생활을 체계적으로 장악하는 제도를 내오면 본인의 사상적 준비정도와 당에 대한 충실성을 기본으로 하여 사람을 평가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정확히 관철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sup>69</sup>

라고 밝힌바 있다.

조직생활카드제는 조직에 속한 학생 개개인의 사상성과 당에 대한 충실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제도이며, 청소년 개개인에 대한 당적 통제 강화를 위한 수단이다. 이는 곧 생활총화와 마찬가지로 조직생활을 규율하는 조직생활카드제는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습활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써 작용함을 의미한다.

<sup>69</sup>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도, 시, 군, 공장, 기업소, 대학 당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및 사로청위원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 2. 3),”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pp. 21~22.

## 2. 청소년 노동수행

아동권 협약에는 “당사국은 경제적 착취 및 위협하거나 아동의 교육에 방해되거나 아동의 건강이나 신체적·정신적·도덕적 또는 사회적 발전에 유해한 여하한 노동의 수행으로부터 보호받을 아동의 권리를 인정한다”(제32조)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북한 사회주의헌법(제31조)과 사회주의노동법(제15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공민이 노동하는 나이는 16살부터이다. 국가는 노동하는 나이에 이르지 못한 소년들의 로동을 금지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 청소년들은 실천투쟁 속에서의 혁명적 단련이라는 명분하에 자신들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국가계획에 따라 농촌, 또는 사회주의건설 현장으로 동원되고 있으며, 이미 법제화된 청소년들의 ‘의무노동’은 그와 같은 노력동원을 극대화하는 데에 적극 활용된다. 북한이 주장하는바, 이와 같은 청소년 노동수행의 법·논리적 근거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1999년에 제정된 교육법은 “교육과 실천을 결합시키는 것은 쓸모있는 지식과 실천능력을 겸비한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필수적 요구이다. 국가는 교육사업을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인민의 리익에 맞게 하며 교육을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하도록 한다”(제4조)라고 규정함으로써 청소년 노동수행의 법적근거를 마련해 놓고 있다. 이와 같은 법 규정은 이론의 사회적 실천이라는 취지에서 학생들의 생산노동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 위한 것이라 하겠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생산노동에서 유리되어 학업을 전문으로 하는 학생들을 생산노동에 참가시키는 것은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며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데, “학생들은 생산로동을 통하여

사상을 단련하고 로동계급의 혁명성과 조직성을 본받으며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공고히 하고 그 응용능력을 키우며 현실에 대한 체험과 로동에 대한 숙련을 쌓는다”<sup>70</sup>라고 밝히고 있다. 북한 청소년들의 ‘의무노동’<sup>71</sup>은 이와 같은 교육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원칙하에 제도화된 것이다.

둘째, 청소년 노동수행은 이른바 ‘노동애호정신’의 구현이라는 명분으로 합리화되며 타당성을 지닌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노동의 열매가 자기 자신과 전체 인민대중의 것으로 되므로 노동은 신성한 창조적 사업이며 전체 인민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영예로운 사업이다. 따라서 노동을 좋아하고 노동에 성실히 참가하는 것은 공산주의자의 가장 중요한 품성의 하나이며, 이와 같은 ‘로동에 대한 공산주의적 태도’는 사람들의 혁명화, 공산주의화를 재는 척도이다. 이와 같은 논거에서 북한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노동을 사랑하도록 교양하지 않으면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 수 없으므로 모든 학생들이 노동을 가장 신성하고 영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며 일하기를 즐겨하고 노동규율을 자각적으로 지키도록 교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또한 북한은 정신노동도 육체노동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며, 정신노동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체노동과 결부되어야 하는바, 청소년들의 학습도 반드시 노동과 결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은 이와 같은 논리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을 각종 노력동원에 참여시키고 있다.

<sup>70</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p. 392.

<sup>71</sup> 1959년에 공포된 ‘내각결정18호’에 따른 ‘학생사회주의의무로동제’에 의하면 인민학교(소학교) 학생은 연간 2~4주, 고등중학교(중학교) 학생은 6~8주, 인문·사회계대학은 12주, 기술계대학은 14주 등으로 의무노동기간이 규정되어 있다.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권 (서울: 자료원, 1995), p. 184.

북한에서 소학교·중학교에 다니는 동안 공부하는 시간보다 일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고 회고하는 한 새터민 여성<sup>72</sup>은 당시의 노동수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먼저 소학교 때에는, 특히 봄에 ‘영양단지’ 할 때에 수업이 끝난 후 매일 농촌에 나가 옥수수 뿌리 캐내기, 밭갈이 등을 했으며, 오후 5~6시에 일을 끝냈다. 또한 농촌에서의 일이 없으면 운동장 넓히기를 하거나, 자갈을 주어다 길 닦는 일을 도왔으며, 겨울에는 석탄을 주우러 가기도 했다. 청년동맹원으로 생활할 때에는 흙을 산에서 퍼 담아와 운동장을 넓히는 일 등을 하였으며 수업이 끝난 오후 1시 30분쯤 부터 오후 7시까지 일을 했다.

북한에서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한 여성 새터민은 청소년들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3개월을 농촌동원에 나가며, 이에 대해 선생님들은 문제의식을 느끼나 학생들은 별다른 의식 없이 교사의 지시에 따른다고 전한다.

북한의 실제 교육과정에서 애들이 5월에 두 달 가을에 한 달 무조건 원정동원을 한다. 근로인력이 부족하니까 학생을 근로 노동력으로 쓴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안 한다. 당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불이익이 있을까봐. 애들은 선생님이 시키니까 그냥 가는 것이고 언니 오빠들도 갔으니까 당연하게 가는 것인 줄 안다.<sup>73</sup>

북한에서 역시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다른 새터민 여성도 북한 청소년들은 중등반이 봄에 한 차례 약 4주 동안, 고등반이 봄·가을 두 차례에 걸쳐 약 8주 동안 의무노동을 하며, 이때에 농촌지원이나 사회건설에 동원되어 청소년들에게는 과도한 정도의 노동을 수행한

<sup>72</sup> 새터민 ○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28일.

<sup>73</sup>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5월 12일.

다고 전한다.<sup>74</sup> 여기에서 농촌지원이란 주변 농촌의 모내기, 김매기, 가을걷이 등에 동원되어 나가는 것을 뜻하며, 사회건설 동원이란 아파트·도로·학교 건설장 등에서 자갈·모래 등의 자재운반을 하거나, 후속작업을 하며 부족한 인력을 보충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 청소년의 노동수행은 이론과 실천의 결합 원칙을 구현한다는 차원에서 교육의 연장으로,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그러나 농촌지원 등 학생의 의무노동수행을 함께한 교사는 이러한 의무노동은 오히려 교육에 방해가 되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예를 들어 한 달 동안 학업을 중단하고 농촌지원을 다녀오게 되면, 가기 전 한 달과 다녀온 후 한 달을 포함해 약 세 달 여 동안 수업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아 학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75</sup> 이와 같이 이론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교육 원칙이 주로 부족한 인력 보충을 위한 농촌지원을 통해 구현되는 실태와 관련해 한 새터민 남성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육과 생산의 결합에 대해 교육과 생산의 결합이 그 어떤 앞으로 사람을 능동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서 사회에 내 놓을 수 있는 그런 목적보다는 간단히 말하자면 농촌 체험이라든지 이런걸 미화하기 위해서 그런 걸 붙이지 않았는지, …제가 보기에는 실습이라든지 그런 활동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다는, …그냥 중학교 때 교육 생산 하면 농촌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각나지요.<sup>76</sup>

청소년 농촌지원 기간은 새터민들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소학교·중학교를 다닌 새터민들은 대체적으로 봄, 가을

<sup>74</sup> 새터민 ○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14일.

<sup>75</sup> 새터민 ○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14일.

<sup>76</sup> 새터민 ○국○,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2일 (한국교육개발원).

두 차례에 걸쳐 1년에 두 달 정도를 다녀온 것으로 나타난다. 한 새터민 남성은 “어른들은 각자의 사업 때문에 교대로 보름 정도씩 나가는데, 학생들은 두 달 동안 무조건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sup>77</sup> 장기간이 아닌 봄·가을 시기마다 방과 후 농촌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다. 전직 중학교 교사(1991~1997)였던 한 새터민 남성에 따르면, 중학교 과정부터 당에 충실하고 일에 충실할 수 있게 하기 위해 6시간 수업이 끝나는 오후 3시에 학생들을 데리고 농촌에 나가 씨 뿌리고, 가을걷이 하고, 겨울에는 인분을 이용해 퇴비를 생산하기도 했다고 한다.<sup>78</sup>

학생들의 농촌지원 기간은 지역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는바, 예를 들어 다른 도가 40일 동안 농촌지원을 한다면, 농업을 주로 하는 황해남도에서는 60일 동안 농촌지원을 나간다.<sup>79</sup> 학생들의 농촌지원은 청소년 교육기관에 따라서도 다르다. 평양에서 특수학교(1994~2004)를 다녔던 한 새터민 학생에 따르면, 평양시외국어학원, 동평양1중학교, 금성학원 등 특수교육기관의 학생들은 1년에 한 차례 20일 동안만 평양시 외곽의 농촌지역으로 동원된다.<sup>80</sup>

농촌지원 동안의 생활도 지역과 교육기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다음의 예는 1990년대에 함경북도 청진에서 중학교를 다닌 새터민 남학생의 농촌지원 생활을 정리한 것이다.<sup>81</sup> 농촌지원은 몸이 아픈 학생을 제외하고는 중학교 3학년부터 전교생이 모두 함께 가며 학급별로 담임교사의 책임 아래 진행된다. 배정된 지역의 농장까지는 열차 편으로 가며, 숙소는 농장원들의 집이다. 그러나 식사는 여학생 3

<sup>77</sup> 새터민 ○국○,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2일 (한국교육개발원).

<sup>78</sup> 새터민 ○석○,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

<sup>79</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sup>80</sup>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2일.

<sup>81</sup>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명과 남학생 1명으로 구성된 ‘식모학생들’이 준비하며, 식량은 농장에서 내어 준다. 학생들은 오전 7시에 기상하며 아침식사를 마친 후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오전 작업을 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다시 일을 시작하여 오후 5시 내지 6시까지 한다. 학생들에게는 매일 해야 할 일의 양이 정해지며, 일이 고된 편이다. 따라서 학급원 모두가 단체로 도망가기도 하며, 이일에 가담한 학생들은 생활총화에서 크게 비판 받을 뿐만 아니라, 소년단지도원에게 구타를 당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굳이 농촌지원 생활의 즐거움이라고 한다면, 그 기간에는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것과 농장에서 친구들과 서리를 하는 것 등이다.

다음의 예는 역시 1990년대에 함경북도 회령시에서 중학교를 다닌 새터민 남학생<sup>82</sup>의 농촌지원 생활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는 식량 구하기가 어려운 때여서 학생들은 농촌지원을 가게 되면 일단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아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농촌지원 나가 있는 동안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에 동원 되는 것을 싫어했으며, 따라서 강요당하는 기분으로 농장에 갔다. 농촌지원은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나가며, 한 곳에 약 100여 명 정도씩 배치된다. 농장에서는 오전 6시에 기상해서 아침식사를 마친 후 오전 7시부터 저녁 8~10시까지 일을 하며, 그 사이에 정오부터 1시간 남짓 점심식사를 한다. 식사는 여학생 4~5명으로 구성된 ‘식모’가 준비하며 빨래는 학생들 각자 한다. 밥의 양이 적은 편이었으며 휴식시간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1주일에 한 번 정도 집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한다. 농장 분조장이 하루 과제를 주면 교사가 소년단 반 단위로 일을 나누어 준다. 남학생은 주로 물 걷기, 물주기 등을 하며, 여학생은 호미질, 모심기 등을 한다. 일은 고

<sup>82</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9일.

된 편이며 힘이 많이 들었다. 그러나 친구들과 숙식을 함께 하며 보내는 것은 재미있었다. 학생들이 한 일은 ‘사회봉사활동’으로서 농장 분조장들이 평가하며, 대체적으로 농장원들은 학생들의 일에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한편 평양의 특수학교 학생들의 농촌지원 생활은 위에서와 같은 다른 지역의 일반 중학교 학생들과는 다소 다르다. 2000년대에 평양에서 특수학교를 다닌 한 새터민 학생<sup>83</sup>이 겪은 농촌지원 생활은 다음과 같다. 동원대상은 고학년(4~6년)의 전학생(300~400명)이다. 학생들은 모두 한 농장으로 동원되며 농장원들의 집마다에 3~4명씩 나뉘어 생활한다. 그러나 식사는 일정한 장소를 식당으로 하여, 여학생 2~3명이 보조자로 포함된 일단의 정해진 사람들이 준비한다. 학생들은 새벽 6시에 일어나며 아침식사를 마친 오전 7시30분부터 정오까지 일을 하고, 점심식사를 마친 오후 1시30분부터 밤9시까지 다시 일을 하며 그 사이에 ‘중참’(새참)을 먹는다. 일을 다 끝내고 난 후에는 ‘작업총화’를 하며 하루 일을 평가한다. 학생들은 농촌지원 일을 많이 힘들어 한다. 그러나 공부하지 않아서 좋고, 친구들과의 단체 합숙 생활이 즐거우며, 다른 무엇보다도 조직생활에서 벗어난 기쁨이 크다. 또한 부모님들이 3~4일에 한 번씩 음식을 싸들고 찾아와 격려도 해주는 등, 학교생활과는 색다른 즐거움이 있다.

북한은 ‘교육과 실천의 결합’ 내지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 원칙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청소년들의 노동수행을 합리화·타당화 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실제 청소년들이 수행하는 노동의 양과 질은 교육과 실천의 결합이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하는 정도이다. 두 달 여를 학교와 집을 떠나 농장생활을 하며 매일 정해진 할

<sup>83</sup>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2일.

당량을 몸에 부담을 느낄 정도로 하는 것은 명백하게 “교육에 방해가 되는 정도의 노동수행”이며 이는 청소년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이다. 또한 청소년 ‘의무노동’이 지역 및 교육기관에 따라 기간 및 내용에 있어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바, 이는 노동수행자인 청소년들을 차별화 하여 대하는 것이기도 하다.

# IV

## 교육내용의 선택권 실태



의무적 조직생활과 교육에 방해되는 정도의 노동수행이 북한 청소년에 대해 학습활동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간접적 요인이라고 한다면, 학생들에 대해 특정한 내용의 학습을 제한, 통제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특정한 내용의 학습을 강요하는 것은 학습활동의 자유에 대한 보다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특정학습의 제한 및 강요는 곧 북한 청소년의 ‘교육내용의 선택권’에 대한 침해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 장에서는 소·중학교의 현행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특정학습의 제한 및 강요에 따른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침해 양상 및 정도를 논하기로 한다.

사회주의교육학의 기본원리는 사람들을 혁명화, 노동계급화 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을 사람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사상혁명과정으로서 중시하며, 사회주의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사람들의 혁명화, 노동계급화를 위한 것으로 일관시킨다. 또한 모든 교육조건과 수단은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는 데 복종되어야 한다.<sup>84</sup>

이와 같이 “본질에 있어서 인간개조사업”<sup>85</sup>인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은 사람들의 사상적 개조를 통해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성격의 핵으로 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북한은 이를 위해 전 주민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 강화를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중시하여 학교생활 및 과외활동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상교양을 진행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당·국가가 지향하는 사상을 신념화한 인간으로의 개조를 위해 청소년의 교육선택권을 제약,

<sup>84</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pp. 373~375.

<sup>85</sup> 김정일,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p. 102.

통제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학습내용 및 방법을 당과 국가가 일방적으로 결정, 집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북한청소년의 교육권 침해는 청소년교육을 제일선에서 담당하는 교원들에 대한 당적통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북한의 모든 교원들은 당·국가의 통제(당적영도) 아래 놓여져 있다. 교원들은 정기학습강령에 따라 학습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학교당조직과 교육행정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또한 정기학습강령에 따른 학습들을 질적으로 조직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특히 교육부문과 청소년교양사업부문에 대한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방침” 등에 대한 학습을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 교육행정은 학교당조직의 지도 아래 교원들이 주·월정치학습계획을 세우도록 지도한다. 이때에는 “로작에 대한 학습을 진행하고, 로작의 어느 부분은 어느 과목의 위대성 교양자료로, 어느 교시와 말씀은 어느 과목, 어느 수업의 당정책화자료로 등이 기입된 교수구현란을 함께 반영”<sup>86</sup>하게하며, 교육행정은 이 계획서가 반드시 교수에 반영되도록 지도와 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또한 교원들이 작성하여 학교당조직과 교육행정의 비준을 받은 계획서의 집행과 교수구현정형에 대해서는 매주 한 번씩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이와 같이 교사에 대한 당·국가의 통제 아래 동일한 내용,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청소년들의 학습활동의 자유권 및 교육내용의 선택권이 제한, 침해당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의 교육내용 선택의 권리에 대한 침해 실태는 이상화 교육과 사상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sup>86</sup> 김경룡, “교원들의 자질향상지도에서 나서는 몇가지 문제,” 『교원선전수첩 1』, pp. 115~117.

## 1. 이상화교육

교육사업에서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확립한다는 명분아래 김일성 이상화 과목이 교육과정에 확고하게 정착된 것은 1968년이다.<sup>87</sup> 이때에 김일성 이상화를 위한 교과목으로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혁명력사』,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 혁명활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노작』 등이 정식 교과목으로 채택되었으며 『공산주의 도덕』 교과서가 완성되어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의 변화와 관련해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한 여성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달라진 것은 역사, ...60년대 가르친 거 다르고 70년대 가르친 거 다르고 80년대 되니까 또 달라. 김일성에 대한 것이 자꾸만 나오니까, ...김일성 과목을 별도로 떼어 냈거든요. 떼어 놓으니까 달라지지요. ...참 웃기는 것은 김일성에 관한 책이 이렇다면 국사책은 이렇게 얇아요. 점점 얇아지지, 자꾸만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국사는 잘 몰라요. 우리 때(1950~1960년대)는 역사를 잘 가르쳤거든요. ...김일성 책은 반듯반듯하게 이렇게 오고, 그건 모자라지도 않고, 그런데 수학같은 거 한문같은 거, 숙제 내줄 수도 없는 거야. 칠판에 다 써줘야 돼. 교과서가 없으니 몇 페이지 해오세요, 이렇게 못해, 교과서가 다 없으니까, 있다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있는데, 너희들이 집에 가서 공부해라...<sup>88</sup>

60년대 교육이 남한과 국사 같은 것도 비슷하게 교육시켰고, 70년대는 이과 같은 거 수준을 좀 높이고 사상교육은 점점 강화되었으니까 60년대 교육하고 사상과목 같은 것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때(1950~1960년대)는 우리나라의 애국명장들 강감찬, 이순신, 을지문덕, 이런 장군들 그 때는 알았는데 지금 아이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오직 김일성 일인자에 대해서만 가르치니까<sup>89</sup>

<sup>87</sup>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 p. 17.

<sup>88</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의 모든 과정을 ‘백두산3대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위대성을 깊이 체득시키기 위한 교육교양과정으로 철저히 일관시키고 있는바,

백두산3대장군(김일성·김정일·김정숙)의 위대성에 대한 교양은 우리 식 사회주의 교육의 제일생명이며 이것을 항구적으로 튼튼히 틀어 쥐고 나가는데 사회주의교육의 사명을 다하는 길이 있다.<sup>89</sup>

라고 한다.

이와 같은 교육방침에 따라 북한의 초·중등교과과정에서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역사 과목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으며 학교 교육 전 과정에 걸쳐 반복적으로 학습된다. 북한 문헌에 따르면 특히 김정숙 혁명역사 과목 교수는 1998년 말부터 1999년 4월에 걸쳐 유치원 높은 반과 소학교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각급 학교들에서 전반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교과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관련 내용을 반복적으로 학습하는 것과 관련해 한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머리에 가장 많이 남는 것은 김일성이나 김정일의 혁명역사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걸 몇 번 반복해서 배웠다면, 유치원 과정에서 배우고 인민학교 과정에서 배우고 중학교 과정에서 또 배우는 거예요. 대학가서 또 배우고, 그것만 4번씩이나 배우는 거예요. 모든 시험과목의 1순위는 역사과목, 조선역사가 아니라 그런 김일성 혁명역사지요.<sup>91</sup>

<sup>89</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sup>90</sup> 『교원신문』, 2001년 11월 29일.

<sup>91</sup> 새터민 ○국○,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2일 (한국교육개발원).

북한의 교과과정에서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이상화 관련 과목들에 대해 가장 높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 관련해 한 새터민은, 학생들이 수학이나 물리 같은 과목은 잘 하지 못해도 별 문제가 없으나 김일성·김정일 혁명역사 과목을 잘 하지 못하면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사상문제로 매우 심한 질책을 당하게 되며 상급학교 진학이나 앞으로의 발전에 결정적 지장을 받게 된다고 말한다.<sup>92</sup> 이와 같은 실태는 교사들에게서도 엿볼수 있는바, 전직교사였던 한 새터민 남성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지도교수, 실무급들에서 뽑아 교수강습대를 조직하여 학교 교원들의 교육실태를 검열하는데, 이때에 중점을 두는 것이 “김일성·김정일 주체사상이 기본 문건상에 있는가, 학생들에게 매 수업마다 1년 365일 보이고 있는가” 등이며, 이것만 잘 되어 있으면 다른 기본과목 교육실태는 별로 문제시하지 않고 교육을 잘 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것이다.<sup>93</sup>

10여 년에 걸친 학교교육과정에서 반복적이며 주입식으로 진행되는 이상화 학습은 특히 관련 교과목에서 역사왜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해 전직 중학교 교사(1992~1998)였던 한 새터민 여성<sup>94</sup>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한 예로 김일성·김정일 탄생부터 시작되는 혁명역사 교재에는 1919년 3·1운동 때 당시 만 6세이던 김일성이 3·1운동에 참가했고, 김일성 일가가 3·1운동을 주도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으며, 독립선언문과 이를 주도한 독립운동가 33인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고 한다. 또한 김일성·김정일은 탄생부터 일반인과는 다르게 묘사, 서술되어 있으며, 김일성 탄생으로 인

<sup>92</sup> 홍순경, “북한 아동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 실상에 대하여,” 『북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국제적 협력』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2003), p. 39.

<sup>93</sup> 새터민 ○석○,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

<sup>94</sup> 새터민 ○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14일.

해서 조선역사, 조선민족의 운명이 바뀐 것으로 가르친다고 한다.

소학교·중학교의 전 학년에 매주 1시간씩 편성되어 있는 사회주의도덕 과목도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교육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직 중학교 교사였던 새터민 여성은 사회주의도덕 과목에 대해 “항일유격활동 때에 김일성에 대해 충성한 모범적 인물 따라배우기를 가르치는 과정”<sup>95</sup>이라고 잘라 말한다. 사회주의도덕 교과에서는 공중도덕, 웃어른에 대한 예의, 친구와의 신의, 선생님에 대한 경의 등 일반도덕의 내용들도 있으나 김일성·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와 관련된 내용들에 가장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역시 전직 교사였던 다른 새터민 여성도 “지금은 충실성 교육만 있고 도덕교육은 없다”<sup>96</sup>고 말한다. 음악시간에도 먼저 “김정일 장군님” 노래를 부르고 난 후에 악보를 가르치며, “경애하는 아버지 김일성원수님 고맙습니다, 친애하는 김정일선생님 고맙습니다, 참된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등을 하루에도 몇 백번씩 외우게 한다.”<sup>97</sup>

우상화교육은 일상적인 학교생활에서 이루어진다. 오전 7시 30분 경 등교한 학생들이 첫 번째 하는 일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를 닦는 일이다. 이 일은 매일 세 차례 정도 하며, 특별히 마련되어 함에 보관된 레이스와 수 장식을 한 위생걸레만을 사용한다.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조금이라도 먼지가 묻어 있으면 담임교사가 엄중한 문책을 당하게 된다.<sup>98</sup> 다음으로 학생들이 하는 일은 ‘독보’이다. 수업 시작 전 10분 정도의 ‘독보’시간에는 김일성 회고록, 또는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찬양 글을 학급의 사상부위원장이 읽으며 학생들은 듣

<sup>95</sup> 새터민 ○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14일.

<sup>96</sup> 새터민 이○○,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18일.

<sup>97</sup>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1일.

<sup>98</sup> 새터민 ○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28일.

는다. 또한 학생들은 매일 등교하여 교실에 들어가면 먼저 김일성·김정일 초상화에 인사하며 방과 후에도 인사를 하고 나온다.<sup>99</sup> 또한 김일성·김정일 어린시절 따라 배우기는 따로 마련되어 있는 방에 들어가서 수업을 진행하며, 김일성·김정일 혁명활동연구실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학교에서의 생활총화도 김일성의 “교시”와 김정일의 “말씀” 등에 맞게 학생으로서의 임무수행을 잘 했는지에 대해 자기비판과 상호비판을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학생들은 방학 기간에 김일성·김정일·김정숙 혁명전적지 및 사적지를 답사하거나, 각종의 야영훈련을 하며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런가 하면 김일성 생일인 4·15기념행사 때에 하는 집단체조를 위해 한 달 동안 매일 수업이 끝난 후 4시간씩 동원되었으며, 각자 옷을 준비해야 했으므로 행사참가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었다고 한 새터민은 전한다.<sup>100</sup>

전직 교사였던 새터민들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이상화와 관련된 교육 내용에 대해 의혹이 없는 편이라고 한다. 또한 1990년대에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닌 새터민들도 자신들이 이상화교육을 받았을 당시에 그 내용에 대해 의혹을 갖거나 반감을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새터민 학생은 말하기를 자신은 김일성이 “민족의 태양이고, 우리의 아버지”이며, “죽을 때까지 충성해야 할 나라의 왕”이라고 배웠으며,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한다.<sup>101</sup> 또한 그는 김일성은 인민을 위한 생을 살았다고 생각하며, 김일성의 항일혁명투쟁 행적을 조금도 의심 없이 믿는다고 말하였다. 전직 의

<sup>99</sup> 새터민 ○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28일.

<sup>100</sup>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sup>101</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9일.

사였던 한 새터민 남성 역시 “김일성·김정일에 대해 의심해본 적이 있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어렸을 적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었고 절대적으로 믿었다. 북한에서의 교육은 밥알 넘길 때부터 아버지 수령에 대한 교육을 하도 많이 받고 자라서 전혀 의심도 없었고 한 번 뵈는 것이 소원이었다”라고 말한다.<sup>102</sup> 1980년대 초에 중학교를 다녔던 한 새터민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이며 주입식인 이상화교육의 효과 내지 영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중국에 딱 넘어 왔을 때, 넘어온 날 저녁에 조선족의 집에 찾아갔을 때, 김일성이 김정일이 이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의 혐오감,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적어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이런 존칭이 우리 머릿 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김일성이란 말을 듣는 순간, 분명히 난 거기서 배척을 당하고 나왔음에도 그게 그렇게 혐오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했죠. 내가 왜 이것 때문에 이런가? 그러니까 교육이, 세뇌교육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느낀단 말이죠. …사람 교육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얼마나 사람을 일생동안 이렇게 집요하게 김일성이나 김정일 밖에 모르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버려서 여기와서까지 내가 이런 느낌을 받을까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구요.<sup>103</sup>

<sup>102</sup> 새터민 박○○,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3일.

<sup>103</sup> 새터민 ○국○,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2일 (한국교육개발원).

## 2. 사상교육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자라나는 세 세대들을 사회와 인민을 위하여, 노동계급을 위하여 투쟁하는 열렬한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는 데 있으며, 학생들을 공산주의적혁명가로 키우는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들에 대한 정치사상교양을 강화하는 것이다.<sup>104</sup>

이와 같은 사회주의교육의 목적은 북한법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교육법 제29조는, “교육기관은 학생에게 …정치사상교육을 앞세우면서 과학기술교육을 깊이있게 하고 체육, 예능교육을 결합시켜야 한다.”(제29조)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사람들의 사상 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개조하는 사업,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이며 장기성을 띠는 사업이므로, “사람들을 공산주의자로 만들려면 어렸을 때부터 좋은 교양을 주고 잘 키워야”<sup>105</sup>한다고 역설한다. 이에 따라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시작되며 소학교와 중학교에서 보다 구체적·체계적으로 진행된다.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사상교양의 주요 내용은 주체사상교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 공산주의교양(계급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 미래사랑정신교양, 집단사랑정신교양, 노동사랑정신교양), 당정책 및 혁명전통교양 등이다.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한 주체사상교양 강화를 위해 다른 무엇보다도 수령의 “로작”과 당문헌 원문에 대한 교육에 크게 비중을 둔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에서는 특히 “수

<sup>104</sup> 김일성, “전반적으로 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김일성 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pp. 247~248.

<sup>105</sup> 김일성,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pp. 81~82.

령의 위대성과 은덕”에 대한 교양을 깊이 있게 하며<sup>106</sup>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를 따라 배우는 운동을 심화하여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혁명적 신념과 양심으로 깊이 간직”하도록 한다. 또한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통해서는 청소년들에게 “자기 수령, 자기 영도자에 대한 충성과 효성은 혁명전사의 가장 중요한 정치도덕적품성이며,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sup>107</sup>이라고 숙지시킨다.

청소년 교양에서 주체사상교양, 수령에 대한 충실성교양과 함께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은 계급교양과 사회주의적 애국주의교양이며, 공산주의교양에서 기본은 계급교양으로 되어있다. 계급교양에서는 “반제교양, 미제와 일본군국주의를 반대하는 교양”에 비중을 두며, 2002년 말 북핵문제로 인해 북·미간 대립, 갈등이 심화된 이후로는 특히 반미교양 강화가 주를 이룬다.

현실은 미제의 대조선지배야망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커가고있으며 미제야말로 우리 조국, 우리 민족의 백년숙적, 철천지원수라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지금은 우리 민족이 자기의 운명과 전도를 걸고 미제와 사생결단의 의지로 싸워야 할 첨예한 반미대결전의 시대이다.<sup>108</sup>

반미교양 강화를 통해 청소년들로 하여금 반미투쟁의지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 북한은 소학교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강도 높은 반미교양을 하고 있으며, 그 양상과 정도는 다음과 같은 교육 내용 및 방법

<sup>106</sup> 김정일,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p. 105.

<sup>107</sup>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69.

<sup>108</sup> 『교육신문』, 2005년 7월 28일.

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sup>109</sup>

소학교 2학년 읽기교재 『미제 승냥이』는 “지난날 선교사의 탈을 쓰고 우리 나라에 기여들었던 미국선교사 허시몬놈이 자기 사과밭에서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하여 명섭소년의 이마에 청강수로 <도적>이라는 글을 새기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담당 여교원은 관련 사진자료를 제시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로 학생들의 반미적개심과 투쟁의지를 고취시킨다.

미국놈들은 사람의 가죽을 쓴 승냥이들입니다. 과수원의 길가에 떨어진 사과 한알을 주었다고 사냥개를 추겨 물어뜯게 하고 그것도 성차지 않아 소년을 나무에 붙잡아 매놓고 청강수로 이마에 <도적>이라는 글을 새기었으니 세상에 이런 악착한 놈들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미제침략자들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 인민의 불구대천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미제의 야수적만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미제를 천백배로 복수해야 합니다.”<sup>110</sup>

청소년에 대한 반미교양은 ‘신천박물관’ 참관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신천박물관’은 6·25전쟁 당시 미군에 의한 양민학살사건이었던 황해도 ‘신천 학살사건’ 관련 자료들을 모아 전시해 놓은 곳이다. 이곳에는 ‘학살된 양민’들에게서 나온 소지품과 이들의 머리카락, 방치된 시신들을 찍은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북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이곳을 돌아보면서 대미적개심과 투쟁의지를 다지도록 한다. 한 예로 2001년 한 해 신천박물관 참관 학생수가 20여 만 명을 헤아릴 정도였다고 한다.<sup>111</sup> 북한은 신천박물관 참관 외에도 반미반일 주제의 이야기 모임, 영화감상발표 모임, 미제와 일제의 만행을 겪은 목

<sup>109</sup> 『교육신문』, 2005년 3월 17일 참조.

<sup>110</sup> 위의 글.

<sup>111</sup> 『교육신문』, 2001년 12월 27일.

격자·체험자들과의 상봉모임, 애국자들 묘 앞에서의 복수결의모임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청소년에 대한 반미·반일교양을 진행한다.<sup>112</sup>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한 계급교양에서 반수정주의교양 강화에도 크게 비중을 두고 있다. 1990년대 이래로는 특히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않게 하고 아무리 어려운 조건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가지도록 교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sup>113</sup> 이와 같은 반수정주의교양은 북한이 1980년대 말 이래 급속하게 전개된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북한 청소년의 사상적 이완 내지 혁명성 약화를 크게 우려함에 따라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와 같은 반수정주의교양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것은 최근 강화되고 있는 ‘준법교양’이다. 준법교양은 학생들을 사회주의법 규범과 규정, 행동준칙으로 철저히 무장시킨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학생들에 대한 사상문화적침투를 막고 이들 속에 혁명적이고 건전한 생활기풍을 세워나가기 위한 중요한 정치사상 교양”으로서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다.

지금 미제국주의자들은 정치, 군사적압력과 경제적봉쇄를 강화하는 한편 저들의 썩어빠진 부르조아사상문화를 침투시켜 우리 공화국을 내부로부터 허물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심리방송을 개시하고 여러 공간을 리용하여 퇴폐적인 록화물, 록음카세트, 불순출판물들을 들여보내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무풍선작전, 소형라디오작전, CD작전에 열을 올리고있다. 그 공격의 화살이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돌려지고있다. 학생들의 일상생활에 가깝게 접근하여 부르조아생활양식을 야금야금 들이밀어보자는것이 제국주의자들의 음흉한 술책이다. 또한 적들이 심리

<sup>112</sup> 『교육신문』, 2005년 6월 23일.

<sup>113</sup> 김정일,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p. 109.

전의 주요바탕으로, 통로로 리용하려는것도 학생들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무규률과 무질서이다. 그런것만큼 학생들속에서 선군시대의 요구에 맞게 준법교양의 도수를 높여 그들속에 법을 존중하는 건전한 준법기풍이 차넘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때만이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침투에 결정적타격을 가할수 있다.<sup>114</sup>

2000년대 들어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양에서 새롭게 강조되고 있는 것의 하나는 이른바 ‘인륜도덕교양’이다. 북한은 종래의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인륜도덕교양과 결부하여 진행할 것을 강조하며, 그 의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인륜도덕은 사람들의 인간적 품모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징표이다. …사회주의의 우리 조국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의 리상과 포부, 밝은 앞날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은혜로운 어머니품이다.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정성다해 모시는것이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인것처럼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를 위해 헌신하는것은 어머니 조국에 대한 참된 인륜도덕으로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애국주의의 교양을 인륜도덕교양과 밀접히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청소년학생들이 사회주의조국을 열렬히 사랑하고 그를 위해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을 마땅한 도리로, 도덕적의무로 여기게 되며 사회주의애국주의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한 정신으로 더욱 공고화되게 된다.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인륜도덕에 대한 교양과 결부하여 진행하여야 하는것은 그것이 자라나는 새 세대로 하여금 순결한 량심과 의리로 당과 수령을 높이 받들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sup>115</sup>

청소년들을 주체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있어 북한은 특히 당 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에 큰 의의를 둔다. 북한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 정책을 확고부동한 신념으로 만들도록 하며, 이를 위해 청소년들

<sup>114</sup> 『교육신문』, 2005년 6월 16일.

<sup>115</sup> 『교육신문』, 2005년 3월 3일.

에게 당의 노선과 정책을 체계적·전면적으로 교육한다. 북한 청소년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 강화는 청소년들로 하여금 “당과 혁명의 역사적 뿌리”를 잘 알게 하며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된 주체의 사상체계, 불멸의 혁명업적과 고귀한 투쟁경험,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 사업작풍을 깊이 체득”<sup>116</sup>시키는 데에 목적이 있다. 학생들에 대한 혁명전통교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 교육’이다.<sup>117</sup>

모든 교육기관들과 학교들에서는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 혁명활동과목들과 백두산3대장군의 어린 시절을 따라 배우는 과목들의 교수와 교양을 끊임없이 심화시켜 나가야 하며 질을 높여야 한다. … 백두산3대장군의 혁명력사, 혁명활동연구실과 백두산3대장군의 어린시절을 따라배우는 교양실을 정중하게 잘 꾸리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야 하며 필요한 학습자료와 교양자료들을 충분히 갖추어 놓고 그 이용을 잘 함으로써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하여야 한다.<sup>118</sup>

위에서와 같이 북한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양에 있어 요체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며, 사상교양의 목적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에 있다.

한편 1994년 7월 김일성 사망과 함께 김정일 시대가 개막된 이래 ‘수령에 대한 충실성’은 보다 더 구체화되어 이른바 ‘수령결사옹위정신’으로 개념화되었다. “수령결사옹위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성의 최고표현”<sup>119</sup>이라고 한다. ‘사회주의도덕교양’에서도 “첫 번째 과업

<sup>116</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p. 383.

<sup>117</sup> 『교원신문』, 2001년 2월 8일.

<sup>118</sup> 위의 글.

<sup>119</sup> 『교육신문』, 2005년 5월 5일.

은 당과 수령을 도덕리적으로 받들도록 교양하는 것, 수령을 결사옹위하는 것을 도덕화, 인생관화하도록 교양하는 것”이다.<sup>120</sup> 북한은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생명으로 간직하도록 하는데 모를 박고” 청소년에 대한 사회주의도덕교양을 심화시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요약하건데, 이로써 최근 북한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에서 기본은 학생들에게 수령결사옹위정신,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을 키워주는 것”<sup>121</sup>이며, 이에 따라 학교교육의 주요과업도 “청소년학생들을 시대의 영웅, 수령결사옹위의 총폭탄, 육탄용사로 키우는것”으로 되었다.<sup>122</sup>

최근 북한은 교육일군들과 교원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강화하며 학생들을 김정일의 선군사상과 노선의 제일옹호자, 제일관철자로 준비시킬 것<sup>123</sup>과 학생들에 대한 이른바 ‘혁명적군인정신’교양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수령결사옹위를 기본핵으로 하는 ‘혁명적군인정신’교양 강화는 학생들이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체질화하도록 하기위한 선결조건이라는 것이다. 또한 북한은 이와 같은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교양을 일컬어 이른바 ‘선군사상교양’이라고도 한다. 이는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사상으로 일관시켜 이들로 하여금 선군사상을 신념화, 체질화하도록 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으며, 교양에서의 기본은 김정일에 대한 절대적인 숭배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sup>124</sup> 선군사상교양에서는 혁명적 군인정신 교양 외에도 “선군시대 영웅들의 자료와 구체적인 현실

<sup>120</sup> 『교육신문』, 2005년 3월 10일.

<sup>121</sup> 『교육신문』, 2005년 3월 31일.

<sup>122</sup> 『교육신문』, 2005년 1월 20일.

<sup>123</sup> 『교육신문』, 2005년 3월 31일.

<sup>124</sup> 『교원신문』, 2003년 8월 14일.

을 통한 교양사업강화, 특히 모교가 낳은 선군시대의 영웅들을 통한 교양사업”<sup>125</sup> 강화를 촉구한다. 이와 같은 사상교육의 일환으로 등장한 것이 “공화국 영웅의 이름으로 명명된 학교”이다. 이는 학교 이름을 모교에서 배출된 ‘영웅’의 이름을 따 개명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당과 수령에 대한 영웅들의 무한한 충실성과 무비의 희생정신”을 따라 배우도록 한다는 데에 의의를 두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중반 이래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변화 속에서 체제수호에 주력하고 있는 북한은 ‘수령결사옹위정신’과 함께 학생들로 하여금 ‘조국보위정신’으로 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학교교육의 중요한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sup>126</sup> 여기에서 조국은 “위대한 장군님”이며, 따라서 “조국보위는 곧 위대한 장군님을 옹호보위하는 수령결사옹위에 있다.”<sup>127</sup>

위에서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사상교양은 긍정적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 조직생활, 사회정치활동, 출판물 및 문예작품의 창작·보급 등의 방법으로 진행된다. 또한 이와 같은 사상교육의 방법으로 인해 초래되는 북한 청소년의 교육내용 선택권 침해 실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상교양의 한 방법인 ‘긍정적 모범에 의한 감화 교양’에 따라 북한 청소년들은 특정학습을 강요당한다. 청소년들은 항일유격대원들의 회상기를 비롯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회상자료들과 투쟁자료들을 가지고 ‘항일혁명투사’와 ‘전쟁영웅’, ‘로력영웅’, ‘숨은영웅’들의 모

<sup>125</sup> 조금철,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사상교양으로 일관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인민교육 3』 (평양: 교육신문사, 2004), pp. 10~12.

<sup>126</sup> “학생들을 조국보위정신으로 무장시키는것은 학교교육의 중요한 임무,” 『교원선진수첩 4』 (평양: 교원신문사, 2003), p. 72.

<sup>127</sup> 위의 글, pp. 74~75.

범을 따라배우는 학습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는 김일성에 대한 항일유격대원들의 충실성과 혁명정신을 따라 배우기 위한 교양사업 강화의 일환이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특히 이른바 ‘김정일 명언’ 학습 및 체득은 당위적·필수적인 교과과정이다. 북한이 주장하는바, 김정일은 북한의 모든 청소년들이 따라 배워야 할 가장 으뜸가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은 사상교양에 있어 이론교육과 실천교육의 결합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학생들에 대해 ‘배움의 천리길’, ‘광복의 천리길’ 답사행군과 같은 혁명전적지와 혁명사적지에 대한 답사를 계획적으로 조직하며, 학생들이 이를 실행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

셋째,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차별이 아니라 조직생활을 통하여 학생들을 교양, 개조하는 것이 기본인바, 이와 같은 국가적 방침에 따라 모든 청소년들은 소년단·청년동맹 생활을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넷째, 북한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현실에 적용하는 실천활동이며, 사회주의건설에 직접 이바지하는 혁명활동<sup>128</sup>이라고 하는 사회정치활동은 중학교 졸업이후 북한 청소년들의 진로 결정에 중대하게 작용한다. 청소년들의 진로결정에 있어 출신성분과 함께 비중 있게 고려하는 당성여부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소년단생활과 청년동맹생활을 통한 청소년들의 사회정치활동에 대한 평가가 주요 기준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사회정치활동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주요 동기는 다른 무엇보다도 당성을 인정받아 보다 나은 진로가 결정되고, 이로써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보장받고 싶은 바람과 기대에서 비롯된다고도 한다.

<sup>128</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p. 394.

다섯째, 사상교양 방법의 하나인 출판물 및 문예작품의 창작·보급과 관련해 북한은 사회적 환경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교육적 영향을 중시하여 각종 출판물을 비롯해 영화, 소설 등의 문예작품 내용을 사상적·혁명적인 것으로 일관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청소년들이 많이 접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한편 위에서와 같은 이상화 및 사상교육과 함께 교육내용의 선택권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또 하나는 성별에 따른 학습주제 결정이다. 교과목의 하나인 실습시간에 여학생은 뜨게질을 배우며 남학생들은 목공, 또는 자동차 운전을 배우는 등, 전통적인 성역할 관념에 따라 실습 주제가 정해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실태에 대해서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이미 시정을 권고한바 있다. 2004년 북한의 아동권 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보고서 심의에 따른 2차 권고의견에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일반 대중과 아동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남녀학생들이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학습 주제들을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할 것”(제55항c)을 권고하고 있다.

# V

## 학습기회의 보장권 실태



## 1. 교육의 기회균등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28조 제1항)에는 고등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능력에 입각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세계인권선언』(제26조3항)에서는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서 우선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 북한은 “사회주의건설의 로력전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전반적11년제의 무교육을 마친 모든 청년들에게 고등교육을 주도록 하여야 한다”<sup>129</sup>고 밝히고 있으며, 『교육법』(제48조)에서도 “고등교육 또는 수재교육 부문의 학생모집은 실력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2003. 6. 18 제정)은 제15조에서 제23조까지 장애자의 교육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15조에는 중앙교육지도기관과 해당기관의 장애인 교육실태에 대한 정상적 파악과 교육 내용 및 방법의 개선이 명시되어 있다. 제17조에서는 교육기관이 소학교 입학 연령의 장애자를 파악하여 등록할 것과 장애자를 중등일반의무교육에서 제외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에서는 장애자의 지망에 따라 전문학교 또는 대학 입학이 가능하며, 이는 실력을 위주로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의 공교육에의 접근은 ‘11년무상의무교육제’에 따라 제도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되어 있다. 또한 북한은 1980년 3월부터 대학 입학자격시험제도(국가판정시험)를 도입하여 원칙적으로는 중학교

<sup>129</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p. 402.

를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했다. 이와 같은 입시제도는 종래 출신성분을 주요 기준으로 하여 진학 대상자를 추천하는 데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증대됨에 따른 조치이기도 하지만, 성분 중시의 진학대상자 추천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인재양성에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가 주어졌어도 정작 대학에 진학하는 학생 수는 매우 소규모이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학 ‘뽀트’(추천서)가 있어야만 대학입학시험을 치를 수 있으며, 한 학교에 배당되는 추천서가 많지 않아 경쟁이 심하기 때문이다.<sup>130</sup> 또한 소수의 추천서가 그나마 당간부 등의 직권남용, 또는 학교측과 학부모의 정실안면관계에 따라 일부 특정한 학생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은 좀처럼 대학입학시험의 기회를 누릴 수가 없다고 한다. 그런가 하면 제1중학교 졸업생에 대해서는 국가관정시험을 면제하고 직접 대학에 추천하도록 하는 등, ‘수재학생’들은 차별화하여 특혜를 부여하기 때문에 일반 중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을 진학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한 예로 1990년대 후반에 북한에서 중학교를 다닌 한 새터민 학생에 의하면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에서는 졸업 후 바로 대학에 진학하는 “직통생”이 5~6명에 불과했다고 한다.<sup>131</sup>

또한 북한 청소년의 대학 진학은 소규모로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나마 자신의 뜻에 따라 능동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국가적 수요에 따라 수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당국이 매 시기마다 민족간부

<sup>130</sup> 최영표·한만길 외, 『내가 받은 북한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p. 86.

<sup>131</sup>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9일.

에 대한 국가적 수요를 파악하고, 이에 기초하여 대학과 대학의 학부, 학과들을 편성하며 학생규모를 정하기 때문이다.<sup>132</sup> 이와 관련해 한 여성 새터민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사실 교원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었다. ...일단 대학에는 흥미가 없었고 내성적이었고 예술 쪽에 취미가 많았다. 그런데 이걸 안 시키고 졸업시험에 점수 높은 애들을 선발해 따로 공부를 시켰다. ...5학년 때부터 따로 공부를 했다. 대학공부로 간 애들은 사회노동에서 뺀다.<sup>133</sup>

청소년의 대학 진학은 출신성분 및 당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입학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중학교 졸업생들에게 대학진학의 기회를 부여하기는 하나, 대학에서의 학생선발은 공정한 실력 경쟁에 의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의 출신배경과 당성(조직생활평가결과)에 의해 좌우된다. 이와 같이 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은 특히 김일성종합대학, 김책종합공업대학 등의 주요대학과 교사를 양성, 배출해 내는 사범대학에서 이루어진다. 특히 핵심 엘리트들을 양성, 배출하는 김일성종합대학의 경우에는 입학 을 원하는 학생의 가족 중에 행방불명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출신 성분이나 당성과는 무관하게 입학이 허락되지 않는다.<sup>134</sup> 대학진학 대상자들 가운데 김일성 친·인척과 항일투사 자녀들(11과대상)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며, 청년동맹 4·5학년 때 중앙당의 심사를 거쳐 선발되어 국가에서 기용하기로 예정된 학생들, 예를 들면 명예위병대(사열·영접), 6과<sup>135</sup>, 김정일친위대 등은 국가수요에 따

<sup>132</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p. 402.

<sup>133</sup>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5월 12일.

<sup>134</sup>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5월 12일.

라 대학을 배정받는다.<sup>136</sup>

새터민들은 이와 같이 출신성분 및 당성에 따른 선별적 진학실태를 “노동자의 자녀는 공부를 잘 해도 노동자가 되고 간부의 자녀는 공부를 잘 못해도 간부가 된다”는 말로 대신한다. 다음은 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선별적 진학실태를 목격한 한 여성 새터민이 전하는 말이다.

공부를 잘해도 집안 환경이, 거기서는 성분이라 하는데, 성분이 좋지 못하면 대학 못가요. 아무리 공부 못해도 아버지가 간부고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심했던 적이 60년대 말부터 70년대, 70년대가 계급투쟁이 제일 심각했거든요. …대학을 가기는 하는데 실제 공부를 해야될 아이들이 못간 거야. …간단히 말하면 공부를 하기 싫어도 아버지가 간부면 억지로 가야 되는 거예요.<sup>137</sup>

한편 이와 같은 성분에 따른 선별적 진학으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위치와 한계를 ‘간과’<sup>138</sup>하고, 대학입학을 스스로 포기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한다.

북한은 제 신분을 많이 알아요. 나는 암만 공부해도 장래가 없다는 아이들은 일찌감치 포기하고 말아요. 아이들이 벌써 아는 거예요

<sup>135</sup> 중학교 여자 졸업생들 가운데 출신성분, 외모, 재능, 가족배경, 경제력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발한다; 새터민들 가운데는 이를 ‘중앙당기쁨조’라고도 한다. ○현○, 2005년 8월 12일 면접; 이전에는 ‘5과’라고 하였으나 최근에 ‘6과’로 바뀌었으며, ‘6과’에 선발되면 금수산 기념궁전 안내원, 당중앙위원회 건물관리원, 호텔 접대원, 중국내 북한식당 접대원 등으로 배출되므로 여학생들이 ‘6과’를 매우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1월 8일.

<sup>136</sup>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2일.

<sup>137</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sup>138</sup> ‘간과’란 문화적 형태 안에 있으면서 그 구성원들이 처한 삶의 조건과 전체사회 속에서의 그들의 위치를 꿰뚫어 보려는 충동을 의미한다. 조정아,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p. 127에서 재인용.

요. 우리 때(1950~1960년대)만 해도 그런 건 잘 몰랐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잘 알아요. …(성분이 좋지 않은) 그런 집 아이들은 공부할 생각도 안 하고…<sup>139</sup>

위에서와 같은 국가수요에 따른 소규모 인원의 수동적·선별적 대학진학이 초래한 가장 심각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학습의지 약화 내지 상실이라 하겠다. 새터민들이 전하는 바를 종합해 보면, 이는 11년제 무상의무교육이 실시된 1970년대나 경제난을 겪고 있는 1990·2000년대나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1979년부터 1984년까지 중학교를 다닌 한 새터민 남성<sup>140</sup>은 “공부 좀 하고, 대학을 가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 외에는 거의가 다 공부를 안 하는 편”인바, “한 학급 50여 명 학생 가운데 10여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공부를 전혀 안 했다”라고 한다. 출석은 강압적으로 시키니까 학교는 나오지만 공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1990년대 이래 대학진학에 있어 출신성분이나 당성보다는 공부실력, 부모의 권력배경, 경제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41</sup> 특히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에서는 실력을 우선으로 하는바, 좋은 성분이 아니더라도 뛰어나게 공부를 잘 하는 학생은 이·공계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한 새터민 여성은 “실력으로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은 김책공대가 거의 유일하다”고 말한다.<sup>142</sup>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실력을 위주로 하여 수재만을 발탁한다는 제1중학교에도 부모의 권력배경에 힘입어 입학한 학생들이 적지 않다고 한다. 평양에서 거주하다 2004년 탈북, 입국한 새터민 학

<sup>139</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sup>140</sup> 새터민 ○국○,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2일 (한국교육개발원).

<sup>141</sup>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sup>142</sup> 새터민 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0일.

생에 따르면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사는 평양에서는 대학진학에 있어 성적이 우선이나, 최근에는 성적보다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다고도 한다.<sup>143</sup> 경제난 악화 이후로 외화를 많이 보유한 계층의 자녀들이 뇌물을 주고 주요 대학에 입학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고등교육의 기회가 성별에 따라 다르게 주어지고 있는 데에서도 나타난다. 통계수치에 의한 확인은 할 수 없으나 새터민들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나 김책공업종합대학 등과 같은 주요 대학에는 주로 남학생들이 많이 가는 편이며 여학생은 상대적으로 적은 수가 진학하는 편이라고 한다. 이와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4년 북한의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보고서 심의에 따른 2차 권고의 견에서 “여자아동도 남자아동과 동등하게 고등교육에 입학할 기회를 갖도록 보장할 것”(제55항b)을 권고한바 있다.

한편 북한 청소년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이다. 장애아동 교육과 관련해 1998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북한의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1차 보고서 심의에 따른 1차 권고의견」(이하 아동권위원회 1차 권고의견)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사실상의 차별적 태도에 우려하며, 장애아동이 보건·교육·사회적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음을 우려한다”(제16항)라고 지적한바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02년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를 통해 “맹아 및 농아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뿐만 아니라 보조금도 지급한다”라고 밝히었다.<sup>144</sup> 또한 2004

<sup>143</sup>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2일.

년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보고서」를 통해 북한은 장애인에 대한 특수학교로서 3개의 맹인학교와 농아를 위한 9개의 학교가 존재하고 9세 이상 1,800명 이상의 맹인, 농아가 등록되어 있다는 통계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동권리위원회의 이양희 위원에 따르면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보장 시책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45</sup> 또한 2004년 「북한의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보고서 심의에 따른 2차 권고의견」(이하 아동권위원회 2차 권고의견)에서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장애아동 등 일부 아동집단들이 기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을 겪고 있음을 우려”(제27항)하며, “장애인의 매우 열악한 생활상태와 그들이 학교와 사회에 통합되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 우려”(제48항)한다고 지적하고, “장애아동을 위한 특수 교육프로그램을 수립하고 가능한 한 그들을 정규학교체계에 포함시킬 것(제49항 d)을 권고하였다. 아동권리위원회의 이와 같은 우려 및 권고는 북한의 장애아동들이 비장애아동들에 비해 더욱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져 있으며,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북한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재능을 전면적으로 꽃 피나갈수 있게 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에서만 가능”하며 바로 이 점에서 자본주의교육에 비해 사회주의교육이 우월하다고 한다.<sup>146</sup> 그러나 아동권위원회 2차 권고의견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여전히 “장애아동·다른

<sup>144</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2002년 4월 9일.

<sup>145</sup> 이양희, “북한내 아동권리 실태,” 『생명과 인권』, 제34호 겨울 (서울: 북한인권시민연합, 2004), p. 23.

<sup>146</sup> 『교원신문』, 2002년 5월 16일.

사회계층아동·시골이나 오지에 사는 아동 등과 같은 일부 아동집단들이 기본적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평등을 겪고”(27항)있으며, “정치적인 배경·건강·활동 등이 고등교육 입학에 영향을 미치고”(제54항d)있다. 북한 청소년들에게 있어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2. 무상의무교육

북한은 1975년 9월부터 관련 법령에 따라 전반적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사업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무상교육이다. 따라서 북한 청소년들은 설치해주는 교육기관 및 교육시설에 교과서와 학용품 등을 무상으로 공급받으며 집단 기숙생활을 하는 학생들은 생활보장을 위한 비용까지 국가로부터 지급받게 되어 있다. 북한은 이와 같은 무상교육의 실시로 청소년들이 배움의 권리와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받는바, 이 점에서 북한의 의무교육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의무교육과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북한이 내세우는 무상의무교육의 의의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청소년에 대한 무상의무교육의 실상이다. 새터민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의무교육이 실시된 1970년대에도 교과서와 학용품이 부족했으며, 해를 더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어 갔다고 한다.

1970년대 내가 교원 할 때도 부족해 가지고 교과서 한 학기 끝나  
 잼아요?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면 다 학교에 바쳐야 돼요. 그렇  
 게 하면 새 교과서하고 혼합해서 공급해야 돼요.<sup>147</sup>

역시 전직 교사였던 다른 여성 새터민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교과서가 싼 값에 나오고 교복은 3년에 한 번 지급하는데 김일성이 탄생일에 무상으로 지급했다. 원래는 상점에서 여름 것, 겨울 것 다 사서 입었다. 치마는 하나면 되는데 여름 것은 반소매 하나 하고 겨울 것은 스웨터에 넥타이 신발 양말 책가방 학용품까지 다 나왔다. 1976년부터는 무상으로 주는데 3년에 한 번씩 전부 무상으로 주었다. 그러던 것이 1980년대부터 없어졌고 1990년대에는 공식적으로 상점에서 사 입으라고 했다. 학용품과 공책들도 싼 가격으로 사서 썼다. 무료는 없었다.<sup>148</sup>

새터민들에 따르면 경제난 전까지는 대체적으로 무상의무교육이 잘 이루어진 편이다. 일단 학령에 달한 모든 청소년들에 대한 의무교육 실시로 문맹자가 없게 되었다. 또한 수업료는 무상이며, 소학교에 입학하면 신발, 가방, 교복(여름옷, 겨울 방한복), 학용품, 교과서 등을 무상으로 받았다.<sup>149</sup> 때로는 교복과 학용품을 개인이 소액의 돈을 내고 받기도 하였으나 거의 무상에 가까웠다. 국정가격으로 구매하는 소학교 교복을 때로는 물량이 부족해서 못사는 경우도 있었으나, 형제·자매간에 대물림하여 입기도 했으므로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들어서는 그동안 부족하나마 매 학기마다 주던 학용품 공급 주기가 3~5년으로 길어졌고, 경제난이 심화된 이후로는 아예 공급이 중단되었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되던 당시(1987~1997)에 북한에서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한 새터민 여성<sup>150</sup>에 따르면, 1991년쯤

<sup>147</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sup>148</sup>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5월 12일.

<sup>149</sup> 새터민 ○은○,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2일.

<sup>150</sup> 새터민 ○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28일.

부터는 학교 수업료만 내지 않았을 뿐 교과서와 학용품, 교복 등을 학생이 모두 구입해야만 했다. 교복은 가격의 절반정도를 학생이 부담해서 구입했으며, 교과서와 학습장은 파지 등 폐품을 학교에 내고 받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 해에 일정액의 교재비를 학교에 미리 내면 돈을 내는 학생 순으로 교재를 받을 수 있었다. 1990년대 들어 경제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특히 학생 교육에 절대 필요한 교과서는 국가로부터 내려오는 물량 자체가 부족해 공급이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1992~1998)에 중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한 새터민 여성에 따르면,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값은 오르지 않았으나 교과서 배포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한다.<sup>151</sup> 한 예로 17개 교과목을 배우지만 각 학생들에게 분배되는 교과서는 3과목 정도 밖에 되지 않으므로 나머지 과목은 다른 사람의 교과서를 베끼거나 다른 반 학생의 교과서를 빌려서 공부를 해야 했다는 것이다.<sup>152</sup> 이와 같은 열악한 사정은 역시 전직 교사였던 다른 새터민 여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1988~1989년까지는 교과서가 나왔다. 북한에서는 이를 교구비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구비품이 보장이 되고 또 수업에 활용할 수 있는 과도와 걸그림 등의 표본이 나름대로 이 시기까지는 활용할 수 있었는데, 1990년도에는 교재도 조금씩 개편되는 것이 있었고, 그 수업에 맞는 걸그림들이 보장이 안 되었고, 의자가 파손되거나 책상이 파손이 되면 당연히 교육부에서 개선해 줘야 하는데 전혀 안 되었다. …1994~1997년에는 학교에서 학용품을 주지 않았다. …교원비품에서 교과서가 와야 학생들한테 나눠주는데 그게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학교에 있던 교과서를 다시 만남을 해서 썼다. 졸업하면 다시 내라고 해서 그를 재활용해서 썼다.

<sup>151</sup> 새터민 ○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14일.

<sup>152</sup>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1993~1994년에도 재활용해서 썼다. 위에서 안 내려와서, …애들이 1년 쓰고 나면 교과서가 지저분해 지는데 교원들은 위에서 교과서가 안 내려 올 것을 알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책을 낙서하거나 더럽히는 것을 막고 표지를 씌우는 것을 강조했다. …새 교과서가 5부씩 왔다. 한 학급에 5개씩, 공부 잘 하는 애들 하나씩 주고 교수용 하나 내놓고 했다. 과목당 5개 오고 6개 오는 그런 게 있다.<sup>153</sup>

또한 교과서는 배포량만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웠을 정도로 종이 질이 나빴다고 한다.

식량난 이전에는 교과서를 6~7개 정도 받았는데 점점 나빠지고 있다. 7~8년 전에는 그나마 흰 종이에 인쇄를 해서 글을 볼 수 있었는데 5~6년 전부터는 까만 종이에 인쇄를 했고 인쇄 자체도 번져 있어서 글을 읽기 자체가 어렵다.<sup>154</sup>

양적·질적으로 매우 열악했던 것은 교과서만이 아니라 학용품도 마찬가지였는바, 한 예로 크림 통이나 로션 통으로 먹통을 만들어 그 안에 해면을 잘라 넣고 물과 먹죽을 섞어서 펜으로 썼으며, 그나마 이런 것도 장에서 사다가 써야 했다.<sup>155</sup> 이러한 학용품 사정은 제1중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실정에 있어 평양의 특수학교는 예외였던 것으로 보인다. 평양에서 특수학교를 다닌 새터민 학생에 의하면 평양지역은 배급이 잘된 편이었는데, 명절공급, 선물 등이 있었으며 교과서 공급도 차질없이 잘되었고, 학용품만은 개인이 장마당에서 돈을 주고 구입해 썼다고 한다.<sup>156</sup>

<sup>153</sup>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5월 12일.

<sup>154</sup>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sup>155</sup> 새터민 ○금○, 인터뷰 시 증언, 2004년 9월 22일.

<sup>156</sup> 새터민 ○현○,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2일.

한편 국가가 지급하는 학교예산이 부족해지면서 각종 부담이 학생들에게 지워졌는바, 예를 들면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외화별이 차원에서 솔화분 채집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대해 학생들은 물품으로 낼 수가 없으면 돈으로라도 해결해야 했다. 1990년대에 소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던 한 새터민 학생은 전하기를 걸레, 양동이, 빗자루 등의 물품 구입비를 학교에 내거나, 군대지원품(위문품) 마련, 또는 명절 때의 군대위문 등을 위해 학교에 돈을 냈으며, ‘꼬마계획’의 하나인 파동, 파철, 파지 등 폐품을 학교에 내지 못하는 경우에도 학교에 돈을 냈다고 한다.<sup>157</sup> 새터민들에 따르면 2002년 이후부터는 교육부담의 70% 정도를 주민들이 감당해야 했는바, 연필, 종이 등 학용품은 물론이고 학교 건축, 학교 건물 관리, 그리고 겨울철 땀감용 나무까지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 지우고 있다고 한다.<sup>158</sup> 이와 같은 실태는 김정일이 2002년 1월 발표한 ‘1·10경제관리개선지침’에서 무료의무교육제도도 일부 불합리한 것들은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와 관련해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4년 아동권위원회2차 권고의견을 통해 “아동을 학교에 보내는 데 있어서 심각한 부담을 느끼는 부모들을 위한 비상교육비용을 우려한다”(제54항b)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 의무교육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청소년에 대한 의무적 군사훈련이다. 북한의 청소년들은 중학교 5학년 때에 2주 정도 ‘붉은청년근위대’ 훈련에 나가 군사 훈련을 받으며, 2~3일 동안은 사격장에서 총쏘기 실습도 한다.<sup>159</sup> 이와

<sup>157</sup>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sup>158</sup>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p. 111.

<sup>159</sup>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관련해 아동권위원회는 아동권위원회 2차 권고의견에서 “학교에 다니는 아동들이 무기를 조립·분해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여름방학 동안 군사캠프에 참여하는 것을 우려한다”(제56항)라고 지적한바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 청소년들의 삶의 환경이 매우 열악해졌으며 삶의 질도 크게 저하되었음은 이미 알려진대로이다. 이와 같은 실태는 청소년들의 학교 출·결석 상황으로도 반영되고 있다. 한 예로 함경북도 온성군 ○○구의 ○○중학교에서는 1996~1997년 사이에 한 학급 45명 학생들 가운데 남학생 7명, 여학생 10명 정도가 출석하였다.<sup>160</sup> 그런가 하면 1994년부터 라남지역의 학교들은 거의 수업을 못했다고도 한다.<sup>161</sup> 이는 특히 교사들 생활이 아주 어려워져 학교에 나오지를 못하였기 때문이며 1995년부터는 최악의 상태로 치달았는바, 1996년에는 중학교 학급인원 50명 가운데 40명 이상이 결석하는 사태를 빚기도 했다는 것이다.<sup>162</sup> 전직 중학교 역사교사였던 한 새터민 남성<sup>163</sup>에 따르면 1991년부터 1997년까지 한 학급 50명 학생 가운데 한 둘 밖에 나오지 않은 지역도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2001년 5월 발간된 『교원신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평양의 학교들에서는 수업이 정상화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 신문에서는 평양소재 중학교에서도 결석사태가 빚어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몇해전 봄이었다. (평양 구서고등중학교)일부 학급들에서 결석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전에 없던 일이었다. 일군들은 교원들과 마

---

<sup>160</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9일.

<sup>161</sup>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sup>162</sup> 새터민 ○창○,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sup>163</sup> 새터민 ○석○,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2일 (한국교육개발원).

주앉아 그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식량사정을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석의 원인이었다.<sup>164</sup>

새터민들에 따르면, 1994년 이후로는 학생들이 배고픔 때문에 공부를 할 수 없었으며, 교사도 학생들을 자습시키고 잠을 자거나 쉬었고,<sup>165</sup> 2~3학급을 묶어서 교사 1명씩 교대로 자습을 감독하기도 했다고 한다.<sup>166</sup>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난다. 한 예로 식량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함경북도지역에서도 정부관리들이 많이 사는 곳은 식량배급이 잘 되는 편이었으므로 학생들의 출석률이 높았다. 1996년도에 함경북도 청진시 ○○구역에 위치한 한 소학교는 학급원 40명 가운데 1~2명 정도만 결석했으며, 중학교 학급원은 100% 전원 출석하였고 학생이 아사한 사례는 없었다고 한다.<sup>167</sup> 평양의 특수학교에서는 경제난 이후에도 정상적으로 수업이 진행되었으며, 결석생도 거의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평양 등 대도시를 제외한 다른 지역들에서는 재학생의 과반수가 결석하여 학교운영이 안 되는 학교들도 적지 않았다.<sup>168</sup> 또한 학교에 나와도 굶주림·배고픔에 시달리는 학생들은 교사의 결근, 합반수업, 교육시설 및 기자재의 낙후 등 학습여건마저 미비되어 있어 공부에 대한 흥미나 의욕을 가질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이래 북한의 무상의 무교육은 제도만 남아있을 뿐 그 의의 및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

<sup>164</sup> 『교원신문』, 2005년 5월 3일.

<sup>165</sup> 새터민 ○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28일.

<sup>166</sup> 새터민 ○인○,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10월 11일.

<sup>167</sup> 새터민 ○원○,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8월 11일.

<sup>168</sup> 새터민 김○○,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2월 3일.

### 3.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활용 가능성 및 용이성

북한의 ‘사회주의교육사업’의 진행 원칙 가운데 하나는 “사회주의 국가가 교육사업을 책임지고 조직 진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국가가 교원 양성, 학교 설립, 교육시설 설치 및 교재·교구비품 마련 등을 비롯해 교육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한다는 것을 뜻한다.<sup>169</sup> 이러한 원칙은 교육법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당기관·기업소·단체의 학교건설 및 보수계획에 따른 교사·실험실·실습기지 건설과 주기적 보수”(제39조), “교육사업에 필요한 기자재·실험설비·교구비품의 계획적 생산 공급”(제40조), “새 학년도 시작 전의 교과서·참고서·과외도서·교육용 녹화테이프 공급”(제41조)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 북한의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 형편이 대체적으로 열악하여 학생들의 활용 가능성 및 용이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함경북도 경원군에서 소학교 교사로 재직(1984~1996)했던 한 새터민 여성<sup>170</sup>에 따르면, 학교에는 교육용 컴퓨터가 거의 없다. 그러나 당국의 컴퓨터 교육 강화 시책으로 인해 학교에서는 관련 교재도 마분지로 컴퓨터 자판기를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연습을 시키며, 따라서 학생들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전직 교사였던 한 새터민 여성은 이와 같은 교육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미비는 1970년대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전한다. 한 예로 실험실이 제대로 설비되어 있지 않아 1960년대에 지급된 시약과

<sup>169</sup> 김일성,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pp. 381~382 참조.

<sup>170</sup>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5월 12일.

실험도구 등을 계속 사용하였으며, 비커가 없으면 학생들에게 집에서 쓰던 유리컵을 가져오라고 해서 사용했다고 한다.<sup>171</sup>

새터민들이 전하는 말과 관련 자료들을 통해 보면 1990년대를 통한 경제난 이전까지는 학교에 교육기자재가 보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 새터민 여성은 1970년대 초만 해도 새 학기가 되면 책·결상, 교과서, 학용품, 사무용품 등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1980년대 이래 북한 경제가 악화됨에 따라 교육기자재 보급에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했으며, 1990년대의 경제난 이후로는 보급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수도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sup>171</sup> 새터민 ○영○,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8일 (한국교육개발원).

# VI

## 경제난 이후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 1. 의무적 조직생활과 청소년 노동수행

경제난 이후에도 청소년의 의무적 조직생활은 이전과 다름없는 동일한 체계로 유지되고 있다. 북한은 식량난과 부분적 체제개방에 따른 외부사조·문물의 침투로 인해 청소년들 사이에 사상적 동요가 있을 수도 있음을 우려하여 경제난 이후 소년단과 청년동맹에 대한 당적통제를 보다 더 강화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의무적 조직생활에서 비롯되는 청소년 학습활동의 자유권 제한도 이전과 다름없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조직의 지도와 통제 밑에서 학습하고 생활해야 한다.

그러나 새터민 학생들에 따르면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청소년의 의무적 조직생활이 해이해진 편이라고 한다. 이를테면 생활총화가 이전보다 더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때로 생활총화를 거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밝혔듯이 조직생활로 인한 청소년 학습활동의 자유 제한은 생활총화가 근원으로 작용한다. 생활총화는 청소년의 조직생활을 주기적으로 관리·통제하는 사상적 기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제난 이후 생활총화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점차 그 의의 및 중요성을 잃어 가고 있음은 향후 청소년 학습활동의 자유권을 전망하는 데 있어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경제난 이후에도 종래와 같이 ‘사회봉사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농촌 지원을 비롯한 청소년 노동수행이 계속되고 있다. 북한당국도 지속적으로 “모든 교육기관들과 학교들에서 농촌지원사업을 실속있게 할 것”<sup>172</sup>을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오전에는 수업하고 오후에는 농촌지원 등에 동원되어 일을 하며, 일의 양도 식량난과 관계없이 많다

<sup>172</sup> 『교육신문』, 2005년 1월 13일.

고 한다.<sup>173</sup> 그러나 식량난 이후에는 이전에 비해 농촌지원이 잘 되지 않으며, 이는 학생들이 일하기를 꺼릴뿐만 아니라 결석생이 많아졌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학교생활은 공부보다는 다른 돈벌이가 우선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니까 공부는 뒷전입니다. 학교에 결석을 해도 선생님이 무어라 하지 않습니다. 한 반에 절반 이상이 학교를 나오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sup>174</sup>

## 2. 이상화 및 사상교육

경제난 이후에도 북한 청소년에게 있어 교육내용의 선택권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90년대를 통해 심화된 경제난 이전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은 당·국가가 지정한 특정한 내용만을 학습한다. 또한 경제난 이후에도 모든 교사들은 여전히 당·국가의 통제 아래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도 북한은 교원들에 대해 “당의 지령이며 법적과제”인 교육강령을 “무조건 접수하고 책임적으로 집행할 의무”와 “교수를 비준된 교수요강과 교수안, 강의안에 의거하여 진행”할 것을 거듭 역설하고 있다. 또한 이에 따라 청소년들은 사회주의교육이 목적하는 바, 공산주의적 혁명인재로 거듭 나기 위해 특정한 내용의 학습을 강요당하고 있다.

소학교·중학교 교과과정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 과목은 여전히 김일성·김정일·김정숙 이상화 관련 과목이다. 김일성·김

<sup>173</sup> 새터민 ○옥○,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7월 28일.

<sup>174</sup> 한국청소년개발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p. 88.

정일 관련 과목을 가장 중요하게 교육했던 1970·1980년대<sup>175</sup>와 비교해 달라진 것이 있다면 김정숙 우상화 관련 과목이 더해진 것과 김일성 사후 김정일 우상화 내용의 교육이 더욱 강화된 것뿐이다.

수령에 대한 충실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사상교육의 내용도 변함없이 답습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난 이후 정치사상교양의 모든 내용들이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 강화로 귀결되고 있으며, 김정일에 대한 충실성교양이 이른바 ‘선군사상교양’으로 이름 지어져 행해지고 있다.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은 경제난 이전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이다. 이는 1980년대 말 이래 침투되고 있는 외부 사조·문물로 인한 ‘자본주의 황색바람’이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확산·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경계해서이다.

지금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를 말살하기 위하여 사람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고 우리의 사회주의를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습니다. 적들은 우리 내부에 <자유화바람>을 불어 넣어 썩어 빠진 부르조아사상과 풍조를 퍼뜨리고 여러 가지 비사회주의적 현상을 조장시키며 특히 새세대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병들게 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부르조아생활풍조와 비사회주의적 현상은 사람들의 계급의식을 마비시키며 사회주의제도를 썩먹고 사회주의 생활양식을 파괴하는 위험한 독소입니다.<sup>176</sup>

1990년대 이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와 사상투쟁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 이른바 ‘모기장’론이다.

<sup>175</sup> 새터민 ○홍○, 인터뷰 시 증언, 2003년 6월 14일 (한국교육개발원).

<sup>176</sup> 김정일,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p. 474.

청소년들속에 밖으로부터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주아 도덕과 생활풍조가 침습하지 못하도록 모기장을 든든히 치는 동시에 그것이 발을 붙일 수 있는 온상인 낡은 도덕과 생활양식을 뿌리 뽑기 위한 조직적인 통제와 사상투쟁을 끊임없이 강하게 벌여 나가야 한다.<sup>177</sup>

위에서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정치사상교육이 경제난 이전 보다 더 강화되는 추세와 관련해, 2004년 아동인권위원회의 2차 권고의견에서는 “더욱 개선을 필요로 하는 교육의 질을 우려”(제54항c)하며, “타국으로부터의 자료에 국민이 접근하는 것을 증가시키기 위한 노력 강화를 포함하여 아동의 정보에의 접근을 촉진할 것과 학생 교환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제55항d)을 권고한바 있다.

### 3. 교육의 기회균등

1990년대 경제난 이후에도 북한 청소년에게 있어 교육의 기회균등이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있다. 경제난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학진학은 국가수요에 따라 수동적·선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아

---

<sup>177</sup> 『청년전위』, 2001년 5월 25일. ‘모기장’론은 1999년 6월 1일자 『로동신문』의 ‘<로동신문>, <근로자> 공동론설: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배격하자’에서 구체화된 것이다. 이 논설의 요지는,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적 침투는 세계제패 전략의 중요한 수단”이므로 자본주의 황색바람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되며, 따라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모기장을 튼튼히 치고 “사회주의사상문화전선을 금성철벽으로 다져나가자”는 것이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초반에도 이른바 ‘모기장 전략’이 등장한 바 있다. 구소련 해체 및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때를 같이 하여 등장한 ‘모기장 전략’은 자본주의 풍조가 침투하는 것을 철저히 막아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1990년대 말에 나온 ‘모기장’론은 부분적 체제개방 확대에 따른 북한 주민의 혁명성·이념성 약화를 우려하여 강조된 것이라는 데에 차이가 있다.

동권위원회 1차 권고의견(1998)과 2차 권고의견(2004)에서 지적되었듯이 북한의 장애아동들은 비장애아동들에 비해 더 열악한 교육환경에 놓여져 있으며, 장애상태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2004년 제출한 아동권협약 이행에 관한 제2차보고서를 통해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교와 맹인·농아들의 등록 현황을 밝힌바 있으나, 실제에 있어서 이러한 사회보장 시책들은 경제난으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교육기회의 불평등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다.

경제난 이후 교육의 기회균등과 관련해 나타난 변화는 대학진학의 조건들이다. 1990년대 이래 대학진학에 있어서는 출신성분이나 당성보다도 공부실력, 부모의 권력배경, 경제력 등이 더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 계통의 대학에서는 실력을 우선적인 조건으로 함으로써 좋은 성분이 아닌 청소년들에게도 대학진학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 주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성적보다 돈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다.

#### 4. 무상의무교육

경제난 이후에도 11년 의무교육제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무상교육의 실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경제난이 심화된 1990년대 이래 북한의 청소년들은 수업료만 내지 않을 뿐 교복, 가방, 교과서,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들을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있다. 특히 교과서는 배포량이 크게 줄어 돈을 주고 구입하기도 어려우며, 그나마 종이의 질이 나빠 공부하는 데 지장을 받을

정도이다. 또한 경제난 이후에는 교육비의 상당부분을 학생과 학부모가 감당하게 되었는데, 학용품은 물론 학교 시설물 관리와 겨울철 땀감용 나무까지도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 지우고 있다.

경제난 이후 무상의무교육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음은 학생들의 출석 상황에서도 나타난다. 경제난 이전에는 좀처럼 허용되지 않던 학생들의 결석이 경제난 이후에는 허용 내지 묵인됨으로써 1990년대 이래 학생들의 결석률이 급증 추세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실태는 다음의 글에서도 엿볼 수 있다. 북한당국은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출석률 보장을 위한 투쟁을 강화할 것을 역설하면서,

교육일군들과 교원들은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울수록 학부형들과 학생들 속에 들어가 생활상 난관은 일시적이라는 것, 오늘을 위한 오늘에 살지 말고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는 참된 인생관을 심어주며 서로 돕고 이끌어주는 집단주의 기풍을 높이 발휘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sup>178</sup>

라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2002년 국제인권A규약 이행보고서(제2차)에서 “2000년 4월 교육성이 발표한 교육법 시행규정하의 규칙 제14조에 따라 일반교육학교는 의료진단서 또는 관련기관의 확인을 거친 질병이나 기타 정당한 사유로 중등일반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는 학생들의 의무교육을 19세까지 연기하고 있다”<sup>179</sup>라고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은 조치 역시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으로 인해 청소년의 학교 출석률이 크게 떨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

---

<sup>178</sup> 『교원신문』, 2000년 8월 31일.

<sup>179</su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이행보고서,” (2002. 4. 9).

한편 북한 청소년의 결석률 급증과 관련해 2004년 유엔 아동인권 위원회는 아동권위원회 2차 권고의견을 통해 “장기화된 경제적 어려움의 결과로서 증가하는 장기결석 및 계절적으로 60~80%의 낮은 출석률을 우려한다”(제54항a)라고 지적하고, “겨울동안 학교건물의 적절한 난방 및 장기결석을 방지하고 감소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제55항a)을 권고한바 있다. 경제난 이후 청소년의 결석률이 급증한 데에는 다른 무엇보다도 굶주림·배고픔, 굶주림으로 인한 질병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이 외에도 장사를 하거나 부모와 함께 식량구입을 위해 ‘행상’에 나서느라 학교에 가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 5.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활용 가능성 및 용이성

경제난 이후 청소년들의 교육시설과 교육기자재 활용 가능성 및 용이성은 이전에 비해 크게 저하되었다. 이러한 실정에 대해서는 북한당국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국제인권A규약 이행보고서(제2차)를 통해 북한은 자연재해로 인해 교육권 실현에 어려움이 야기되었는바, 1995년의 수해로 2,290개 학교와 4,120개의 유치원이 파괴되고, 많은 교육기자재가 유실되었으며 제지공장, 교육기자재 및 기타 관련부문 생산단위의 손실로 인해 교육분야에서 어려움이 크다고 밝히었다.<sup>180</sup>

새터민들에 따르면 중학교에는 화학실험실, 물리실험실, 생물실험실, 박제표본실, 체육기자재실, 음악실, 수영장, 체육관, 무용실, 기계

<sup>180</sup> 위의 글.

실습실, 조리실, 재봉실, 자동차실습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외에도 보편적이지는 않으나 컴퓨터실을 갖춘 학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물들은 제대로 설비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경제난 이후 크게 파손되어 학생들이 활용하기에는 불편함이 적지 않다고 한다. 또한 교실의 책상·결상 등 시설·설치물 파손 때에는 학생들이 보수해야 하며,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학교 유리창이 깨지면 비닐로 대고 썼다.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통해서 얘기를 하면 비닐 장막을 보낸다. 책상이 망가지면 학부모 회의를 해서 자기건 자기가 수리하도록 했다. …1990년대 초반에는, 책상이 3년 이상 안 가는데, 학부모 회의를 열면 학부모들이 알아서 다 자기들끼리 돈을 구하던지 해서 해결했다. 그 거는 교원이 관여를 안 한다. 왜냐하면 김일성 교시에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너무 주지 말라는 게 있기 때문이다. 학부모 회의를 열면 모자위원회가 학급에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 스스로가 알아서 하기에 교원들과 별도이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는 자기들도 돈이 없고 힘드니까 잘 운영이 되지 않았는데…<sup>181</sup>

---

<sup>181</sup> 새터민 최○○, 인터뷰 시 증언, 2005년 5월 12일.

# VII

## 결론



북한은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에서 “우리 사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교육을 받을 의무를 지니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교육은 국가사업의 하나로 당적통제 아래 이루어지며, “본질에 있어서 인간개조사업”인 북한 사회주의교육의 기본과업은 사람들의 사상적 개조를 통해 “주체형의 공산주의 혁명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교육을 받을 권리는 전적으로 당과 국가의 의지에 따라 구현되며, 모든 사람은 당·국가가 결정하고 집행하는 교육 내용 및 방법을 수용해야할 의무만이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교육받을 권리 및 의무 실태는 ‘학습활동의 자유권’, ‘교육내용의 선택권’, ‘학습기회의 보장권’ 등으로 범주화하여 살펴본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아동권협약에서는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제12조)라는 것과, “아동은 표현의 자유를 갖는다”(제13조)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청소년들에 대해 조직생활을 의무화하고 특정한 내용의 학습을 강제함으로써 이와 같은 규정을 위배하고 있으며, 또한 학습활동의 자유권과 교육내용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과시할 때 가장 먼저 내세우는 것은 무상치료제와 무상교육제도이다. 그러나 1990년대 이래 경제난이 심화됨에 따라 무상교육제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월한 제도”로서의 의의를 상실하고 있다. 북한 청소년

들은 교과서와 학용품의 부족뿐만 아니라 학교 건물을 비롯한 교육 시설 및 교육기자재의 낙후와 파손으로 인해 학업 수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식량난이 초래한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인해 청소년의 학교 출석률도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난의 심화로 인해 북한 청소년들은 학습기회의 보장권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은 앞으로 통일시대를 담당할 주역이 남북한의 청소년들이라는 데에서 보다 큰 의의와 중요성을 갖는다. 또한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육시스템이 정상화되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도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의 정상화로 학습기회가 보장되어야 하며 점차 자유로운 학습활동, 교육내용의 선택 등으로 교육권이 확대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서 논의를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북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 제고이다.

이는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방안을 보다 현실성·효율성 있게 하기 위한 기본적인 선행조건이다. 북한 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이들의 삶의 질에 대한 올바른 인식 내지 이해와 이들이 처해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높은 관심이 선행될 때에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개선방안이 모색, 추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 청소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이들의 인권상황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있어서는 객관적이고 균형 있는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이념적 편견의 배제와 인권개념의 보편성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의 지원사업 강화이다. 이는 특히 북한 청소년의 학습기회 보장과 관련해 시급성을 요하는 사안이다. 청소년의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을 정상화하기 위한 학교시설 보수와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 지원의 확대, 강화가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북한도 여러 경로를 통해 교과서 제작용 용지, 어학 학습기, 교육용 컴퓨터 등과 같은 청소년 교육기자재 지원 요청을 해오고 있다.<sup>182</sup> 그러나 종래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가운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매우 빈약하며, 특히 교육분야의 지원사업은 거의 제외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183</sup> 최근 들어 교육분야 지원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감에 따라, 대북지원 민간단체들에 의해 교육기자재 대북지원이 점차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나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청소년 교육분야의 대북지원사업은 보다 더 확대, 강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소년 교육 관련 지원물품으로는 교과서제작용 종이를 비롯해 학습장, 각종 필기구 등의 학용품, 다양한 체육용품, 비커, 시약 등의 실험기자재, 시청각교육기기, 교육용 컴퓨터 등의 교육기자재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전직 교사였던 새터민들은 어학교재 및 일반도서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한다.

셋째,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제도화이다.

잡은 만남과 대화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나아가 친밀감을 형성케 한다. 또한 사상과 이념을 배제한 순수한 만남과 대화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남북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과 관련한 논의도 자

<sup>182</sup> 길은배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p. 114 참조.

<sup>183</sup> 위의 책, p. 112 참조.

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은 남북 사회문화분야 교류·협력내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주로 체육분야와 학술분야, 또는 남북공동행사 등에서의 남북 대학 및 대학생들간의 교류가 대부분이었다. 남북 초·중등학생들간의 교류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래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 개선의 추이에 비추어 볼 때, 이제 남북 청소년교류도 초·중등 및 대학으로 세분화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머지않아 현실로 다가올 통일을 상정할 때 남북한간 집단별·계층별 이해는 사회통합을 위한 선행과제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남북 교류·협력은 남북 청소년간 문화적 이질화 극복 및 동질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개선과 관련해 기여하는바가 적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한의 초·중등학생이 주체가 되어 진행되는 남북 청소년 교류에서는 친선체육경기, 수학·과학경시대회, 수련대회, 그리고 노래와 춤, 연극 등의 공연물 교환공연 등이 바람직하다. 또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에 있어서는 북한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분야 지원사업과 남북 청소년 교류를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도 적극 모색,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한 청소년들은 교육분야의 대북지원사업에 참여함으로써 북한 및 북한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남북 청소년교류에 있어서도 보다 더 능동적·적극적인 자세로 일정부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 강순원. 『평화·인권·교육』. 서울: 한올아카데미, 2000.
- 김신일. “학습권 개념내용과 교육학의 새 연구과제.” 『평생교육연구』. 제1권 제1호.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평생교육연구센터, 1995.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길은배 외.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탈북자 증언을 통해서 본 북한인권 실태조사』. 서울: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2005.
- 박성희. 『북한청소년의 생활』. 서울: 공보처, 1995.
- 서동익. 『인민이 사는 모습』 1권. 서울: 자료원, 1995.
- 에드워드 스튜어트 저, 김성경 역. 『문화차이와 인간관계』. 서울: 보성사, 1991.
- 윤정일·송기창 외. 『한국 교육정책의 쟁점』. 서울: 교육과학사, 2004.
- 최영표·한만길 외. 『내가 받은 북한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 통일교육원. 『북한이해』. 서울: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5.
- \_\_\_\_\_. 『2005년 북한인권백서』. 서울: 통일연구원, 2005.
- 한국교육개발원. 『북한교육 현황 및 운영실태 분석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8.
- \_\_\_\_\_. 『남북한 초등학교 도덕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분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6.
- 한국청소년개발원. 『인도적 지원을 통한 남북 청소년 교류·협력 확대방안 연구』.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 한중모. 『주체의 인간학』.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2. 논문

- 김일성.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적극화할데 대하여: 도, 시, 군, 공장, 기업소, 대학 당위원회 청년사업부장 및 사로청위원장 협의회에서 한 연설 (1971. 2. 3).” 『김일성저작집 26』.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4.
- \_\_\_\_\_. “학교교육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몇가지 과업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2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전반적으로 11년제의무교육을 성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김일성저작집 30』.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5.
- \_\_\_\_\_.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함에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사회주의교육에 관한 테제》를 철저히 관철할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2』.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_\_\_\_\_. “어린이보육교양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김일성저작집 31』.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정일. “청소년사업에 대한 당적지도를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김정일선집 7』.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6.
- \_\_\_\_\_. “교육사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하여: 전국교육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 『김정일선집 8』.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 \_\_\_\_\_. “청년동맹초급조직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 『김정일선집 14』.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 윤종진. “김정일 등장 이후의 ‘정치사상교양’ 정책의 변화 분석.” 『통일정책연구』. 13권 2호. 서울: 통일연구원, 2004.
- 조금철.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선군사상교양으로 일관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인민교육 3』. 평양: 교육신문사, 2004.
- 조정아. “김정일시대의 북한 교육정책.” 『아시아교육연구』. 제5권 제2호. 서울: 서울대학교 교육연구소, 2004.

- \_\_\_\_\_. “북한 중등학교 규율과 ‘반학교문화.’” 『교육사회학연구』. 제14권 제1호  
서울: 한국교육사회학회, 2004. 4.
- 홍순경. “북한 아동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교육과 인권 실상에 대하여.” 『북한  
아동·청소년의 인권과 국제적 협력』. 한국아동학회 추계학술대회,  
2003.

### 3. 기타자료

『교원신문』.

『교육신문』.

『교원선전수첩 1~4』. 평양: 교원신문사, 200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제2차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이행보고서.” 2002년 4월 9일.



# 최근 발간자료 안내

## 연구총서

2003-01	북한의 인권부문 외교의 전개방향	최의철	저	6,000원
2003-0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	이우영	저	5,000원
2003-03	『조선녀성』 분석	임순희	저	6,000원
2003-04	북한의 개인송배 및 정치사회화의 효과에 대한 평가연구	서재진	저	6,500원
2003-05	21세기 미,중,일,러의 한반도정책과 한국의 대응방안	여인곤 외	공저	8,500원
2003-06	부시 행정부의 군사안보전략	이현경	저	5,000원
2003-07	일본의 군사안보전략과 한반도	김영춘	저	4,000원
2003-08	중국의 한반도 안보전략과 한국의 안보정책 방향	최춘흠	저	3,500원
2003-09	한반도 평화정착 추진전략	박영호 외	공저	8,500원
2003-10	핵문제 전개 및 내부 정치변동의 향배와 북한 변화	박형중	저	7,000원
2003-11	미국의 대이라크전쟁 이후 북·미관계 전망	최진욱	저	5,000원
2003-12	북한의 후계자론	이교덕	저	4,500원
2003-13	김정일 정권의 안보정책: 포괄적 안보개념의 적용	박영규	저	5,500원
2003-14	북한의 사회통제 기구 고찰: 인민보안성을 중심으로	전현준	저	4,000원
2003-15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남북관계 및 북한 경제지원 시나리오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3-16	통일예측모형 연구	박영호 외	공저	8,000원
2003-17	동북아 안보·경제 협력체제 형성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3-18	국제적 통일역량 강화방안	황병덕 외	공저	10,000원
2003-19	북한 재산권의 비공식 이행	임강택 외	공저	5,000원
2003-20	북한 노동력 활용방안	최수영	저	3,500원
2003-21	대북 인도적 지원의 영향력 분석	이금순	저	5,500원
2004-01	인도주의 개입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저	6,000원
2004-02	A CRITICAL JUNCTURE	최진욱	저	4,000원
2004-03	식량난과 북한여성의 역할 및 의식변화	임순희	저	5,000원
2004-04	통일 이후 갈등해소를 위한 국민통합 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5	미·중 패권경쟁과 동아시아 지역패권 변화 연구	황병덕 외	공저	9,500원
2004-06	중국의 부상에 대한 일본의 인식과 군사력 강화	김영춘	저	4,000원
2004-07	주한미군 감축 및 재배치와 한국의 국가안보	홍관희	저	4,500원
2004-08	남북경협 실패사례 연구: 대북 경협사업의 성공을 위한 정책과제	김영운	저	7,500원
2004-09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과 북·미관계	정영태	저	5,000원
2004-10	미국의 대북인권정책 연구	김수암	저	6,000원
2004-11	김정일 시대 북한의 정치체제	박형중 외	공저	10,000원
2004-12	미국의 한반도 정책과 통일문제	박영호	저	5,500원
2004-13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과 외자유치 전략 :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임강택 외	공저	6,000원

2004-14	7·1조치 이후 북한의 체제 변화 : 아래로부터의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서재진	저	7,500원
2004-15	CSCE/OSCE의 분석과 동북아안보협력에 주는 시사점	손기웅	저	5,000원
2004-16	남북 사회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대내적 기반구축방안 : 통일문제의 갈등구조 해소를 중심으로	조한범	저	4,500원
2004-17	국제적 통일역량 실태분석	여인곤 외	공저	9,000원
2004-18	대북지원민간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연구	이금순	저	5,000원
2004-19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북한경제 변화 전망 : 실질소득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수영	저	4,000원
2004-20	1994~2000년 북한기근: 발생, 충격 그리고 특징	이 석	저	9,000원
2005-01	Toward Greater Transparency in Non-Nuclear Policy : A Case of South Korea	전성훈	저	7,000원
2005-02	유럽연합(EU)의 대북 인권정책과 북한의 대응	최의철	저	8,000원
2005-03	북한의 노동인력 개발체계: 형성과 변화	조정아	저	7,000원
2005-04	Energy Cooperation with North Korea : Issues and Suggestions	김규륜	저	4,500원
2005-05	일본의 보수우경화와 국가안보전략	김영춘	저	5,000원
2005-06	북한주민의 국경이동 실태: 변화와 전망	이금순	저	6,500원
2005-07	북한 청소년의 교육권 실태: 지속과 변화	임순희	저	5,500원
2005-08	미·중 패권경쟁과 우리의 대응전략	황병덕	저	9,000원
2005-09	북한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남북 협력 방안 연구	김영윤	저	7,000원
2005-10	청소년의 통일문제 관심 제고 방안	손기웅	저	5,500원
2005-11	러시아 탈 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갈등	조한범	저	6,000원
2005-12	동북아협력의 인프라 실태: 국가 및 지역차원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13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	김수암	저	7,000원
2005-14	6·15 공동선언 이후 북한의 대남협상 행태: 지속과 변화	허문영	저	7,500원
2005-15	북한체제의 분야별 실태평가와 변화전망 : 중국의 초기 개혁개방과정과의 비교분석	이교덕 외	공저	10,000원
2005-1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통일전망	조 민	저	6,000원
2005-17	북한의 경제개혁과 이행	이 석	저	7,000원
2005-18	북한의 산업구조 연구	최수영	저	5,500원
2005-19	탈냉전시대 전환기의 일본의 국내정치와 대외전략	배정호	저	6,500원
2005-20	부시행정부의 대북 정책 추진 현황과 전망	김국신	저	5,000원
2005-21	미국 외교정책에서의 정책연구기관(Think Tanks)의 역할과 한반도 문제	박영호	저	8,500원
2005-22	2005년도 통일문제 국민여론조사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23	미국과 중국의 대북 정책 및 한반도 구상과 한국의 정책공간	박형중	저	5,000원

## 북한인권백서

북한인권백서 2003	서재진 외 공저	9,5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3</i>	서재진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4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4</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북한인권백서 2005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i>White Paper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2005</i>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 연례정세보고서

2003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3~2004		6,000원
2004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4~2005		6,000원
2005 통일환경 및 남북한 관계 전망: 2005~2006		6,000원

## 학술회의총서

2003-01 신정부 국정과제 추진방향		5,000원
2003-02 한반도 평화변영과 국제협력		5,500원
2004-01 김정일 정권 10년: 변화와 전망		10,000원
2004-02 한반도 안보정세변화와 협력적 자주국방		10,000원
2004-03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		8,000원
2004-04 남북한 교류(화해)·협력과 NGO의 역할		7,500원
2004-05 한반도 평화회담의 과거와 현재		5,500원
2004-06 북한경제와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		6,500원
2004-07 한국 및 미국의 국내환경변화와 한반도 평화		10,000원
2004-08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변영과 한·중 협력		9,000원
2005-01 북한 경제의 변화와 국제협력		8,000원
2005-02 6·15남북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번영: 평가와 전망		10,000원
2005-03 Infrastructure of Region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 Current Status and Tasks		10,000원
2005-04 Implementing the Six-Party Joint Statement and the Korean Peninsula		10,000원
2005-05 북한 광물자원 개발 전망과 정책방안		10,000원

## 논 총

통일정책연구, 제12권 1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2권 2호 (2003)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1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3권 2호 (2004)	10,000원
통일정책연구, 제14권 1호 (2005)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1 (2003)	9,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2, No. 2 (2003)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1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3, No. 2 (2004)	10,000원
<i>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i> , Vol. 14, No. 1 (2005)	10,000원

## 영문초록

2003-1 KINU Research Abstracts '02	10,000원
------------------------------------	---------

## 협동연구총서

2003-01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			10,000원
2003-02	통일정책 추진체계 실태연구	허문영 외	공저	10,000원
2003-03	남북관계의 진전과 국내적 영향	최진욱 외	공저	10,000원
2003-04	법·제도분야 통일인프라 실태 연구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3-05	통일교육의 실태조사 및 성과분석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3-06	국내적 통일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 경제분야	이상만 외	공저	10,000원
2003-07	북한이탈주민 적응실태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3-08	종합결과보고서: 국내적 통일인프라 실태조사	박영규 외	공저	9,000원
2004-01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10,000원
2004-02	정보화시대 통일정책 거버넌스 개선방안	여인곤 외	공저	7,000원
2004-03	남북관계 개선의 국내적 수용력 확대방안 : 분야별 갈등의 원인 및 해소방안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4-04	통일관련 법적 인프라 정비 및 개선방안	제성호 외	공저	10,000원
2004-05	통일지향 교육 패러다임 정립과 추진방안	고정식 외	공저	10,000원
2004-06	경제분야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4-07	북한이탈주민 분야별 지원체계 개선방안	이금순 외	공저	8,500원
2004-08	종합결과보고서: 통일인프라 구축 및 개선 방안	김영춘 외	공저	5,500원
2004-09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10,000원

2004-1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협력적 아시아 인식의 모색	오명석 외	공저	5,500원
2004-11	동북아문화공동체와 유럽문화공동체의 공통성과 차별성	김명섭 외	공저	5,000원
2004-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국·중국·일본의 대중문화산업에 대한 비교연구	양영균 외	공저	10,000원
2004-13	동북아 공동의 문화유산에 대한 공동 연구와 관리	박경하 외	공저	10,000원
2004-14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방안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동남아 문화 공동체 형성 가능성 분석	서중석 외	공저	10,000원
2004-15	동북아 평화문화 비교 연구	조한범 외	공저	9,500원
2004-16	동북아 한민족 사회의 역사적 형성과정 및 실태	최진욱 외	공저	6,500원
2004-17	동북아공동체의 행정조직 구축에 관한 연구: 유럽연합의 행정부인 집행위원회 조직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윤종설 외	공저	5,000원
2004-1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실태 및 개발 동향과 인적자원개발 분야의 공동체 형성 가능성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4-1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기반 구축방안	전재경 외	공저	8,000원
2004-20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 기반 구축방안 : 형사법제를 중심으로	이진국 외	공저	6,000원
2004-2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교류협력방안	김이선 외	공저	8,500원
2004-2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협력 연구	윤철경 외	공저	10,000원
2004-23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육 분야 교류·협력의 실태	한만길 외	공저	10,000원
2004-24	동북아 국가간 관광교류협력 방안(Ⅰ) : 잠재력과 장애요인	박기홍 외	공저	6,000원
2004-25	동북아 문화공동체 추진의 비전과 과제(Ⅰ)	김광억 외	공저	4,000원
2004-26	종합결과보고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연구	김광억	저	4,500원
2005-01-01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유럽연합의 정책 사례	김명섭 외	공저	9,500원
2005-01-0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한·중·일 대중문화 교류의 현황 및 증진 방안 연구	문옥표 외	공저	10,000원
2005-01-03	동북아 문화공동체의 동아시아 지역 확대를 위한 동남아시아 정치 사회 문화 인프라 연구	서중석 외	공저	9,000원
2005-01-04	동북아 평화문화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	전성훈 외	공저	10,000원
2005-01-05	동북아 한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배정호 외	공저	10,000원
2005-01-06	동북아 지역인권체제(포럼) 구성 추진	최의철 외	공저	10,000원
2005-01-07	동북아공동체의 정책결정기구 구축에 관한 연구	윤종설 외	공저	10,000원
2005-01-08	동북아 국가의 인적자원개발 제도 및 인프라 분석과 공동체 형성 방향 연구	강일규 외	공저	10,000원
2005-01-09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법적지원방안 연구(Ⅱ)	전재경 외	공저	10,000원
2005-01-10	변화하는 동북아 시대의 체계적인 국경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연구	장준오 외	공저	8,000원
2005-01-11	동북아 여성문화유산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연구	김이선 외	공저	10,000원

2005-01-12	동북아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청소년교류 인프라 구축 연구	오해섭 외	공저	9,000원
2005-01-13	동북아시아 3국 학생 및 교원의 상호이해에 관한 의식조사 연구	한만길 외	공저	9,000원
2005-08-01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10,000원
2005-08-02	남북한 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통일정책 거버넌스 구축 방안	김국신 외	공저	10,000원
2005-08-03	통일관련 국민적 합의를 위한 종합적 시스템 구축방안 : 제도혁신과 가치합의	박종철 외	공저	10,000원
2005-08-04	남북한 통합을 위한 법제도 인프라 확충 방안	이철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5	신패러다임 통일교육 구현방안	박광기 외	공저	10,000원
2005-08-06	남북한 경제통합의 인프라 확장방안	양문수 외	공저	10,000원
2005-08-07	북한이탈주민 사회적응 프로그램 연구	이금순 외	공저	10,000원
2005-08-08	종합결과보고서: 남북한 통합과 통일인프라 확장방안	김영춘 외	공저	10,000원
2005-09-01	동북아 NGO 백서	전봉근 외	공저	10,000원
2005-09-02	동북아 NGO 연구총서	조한범 외	공저	10,000원

◆ 비매품 ◆

통일정세분석

2003-01	중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전망: 10기 전인대 1차회의 결과분석			신상진
2003-02	북한 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향후 전망			임강택
2003-03	북한 인권실태에 관한 미국과 국제사회의 동향			최의철, 임순희
2003-04	한·미 정상회담과 공조방향			이현경, 박영호
2003-05	일본의 안보개혁과 유사법제 정비			배정호
2003-06	북한 병력제도 변화와 병력감축 가능성			박형중, 정영태
2003-07	11기 1차 최고인민회의 개최 동향 분석			박형중
2004-01	2004년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박형중, 전현준, 이교덕, 최진욱		
2004-02	최근 북한 변화 및 개혁 동향			북한연구실
2004-03	제13차 남북장관급회담 결과 분석 및 전망			조한범
2004-04	최근 북한의 주요 대남논조: 「민족공조」론 강조의 배경과 의도			박형중
2004-05	미 국무부의 '2004년 북한 인권보고서' 분석			최의철
2004-06	제2차 6자회담 분석과 전망			전성훈
2004-07	제4대 러시아 대선결과 분석			여인곤
2004-08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11기 제2차 회의 결과분석			이석, 최진욱
2004-09	제60차 유엔인권위원회의 북한인권결의안 채택과 우리의 고려사항			최의철, 임순희
2004-10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국방문 결과 분석			이교덕, 신상진
2004-11	2차 북·일 정상회담 결과분석			김영춘
2004-12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CU)프로그램 추진 실태			전성훈
2004-13	2004년 상반기 북한 동향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서재진, 이교덕		
2004-14	일본 참의원 선거결과 분석			김영춘

2004-15	남북한 전자상거래 추진방안	김영윤, 박정란
2004-16	미의회 '북한인권법': 의미와 전망	김수암, 이금순
2004-17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Ⅰ) : 케리 민주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박영호, 김국신
2004-18	2004년 미국 대통령선거 동향 분석(Ⅱ) : 부시 공화당 후보의 외교안보정책 방향	김국신, 박영호
2004-19	중국공산당 16기4중대회 결과분석	전병곤
2004-20	2004년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결과 분석	김국신, 박영호
2004-21	중국의 동북공정과 우리의 대응책	전병곤
2005-01	2005년 북한의 신년 「공동사설」 분석 및 정책 전망 이교덕, 서재진, 정영태, 최진욱, 박형중	
2005-02	북한의 경제개혁 동향	김영윤, 최수영
2005-03	북한의 「핵보유」 선언 배경과 향후 입장 전망	정영태
2005-04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 이후 주변 4국의 반응과 향후 정책 전망 박영호, 김영춘, 여인곤, 전병곤	
2005-05	북한인권 관련 미 국무부 보고서 분석 및 정책전망	최의철, 김수암
2005-06	중국 10기전인대 제3차회의 결과 분석	전병곤
2005-07	일본의 보수우경화 동향분석	김영춘
2005-08	농업분야 대북 협력 방안	김영윤, 최수영
2005-09	2004년 북한 영향실태조사결과 보고서 분석	이금순, 임순희
2005-10	북한 최고인민회의의 제11기 제3차 회의 결과 분석	박형중, 최진욱
2005-11	북한 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동향 : 제61차 유엔인권위원회의의 결의안 채택을 중심으로	최의철, 임순희
2005-12	최근 중·일관계와 갈등요인 분석	배정호
2005-13	북한인권국제대회 동향과 향후 전망	김수암
2005-14	북한 주권국가 인정문제의 국제법적 조명: 동·서독 사례와 향후 통일정책 과제	황병덕
2005-15	동서독간 정치범 석방거래(Freikauf)	손기웅
2005-16	일본 총선 결과 분석	김영춘
2005-17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	김영윤, 이 석, 손기웅, 조 민, 서재진, 최수영
2005-18	미·일동맹의 강화와 주일미군의 재편	배정호
2005-19	주변4국과의 연쇄 정상회담 결과분석	여인곤, 박영호, 배정호, 최춘흠
2005-20	APEC 정상회의의 의의와 한국의 역할	김규륜

### KINU 정책연구시리즈

2005-01	북핵보유선언: 향후 정세전망과 우리의 정책방향	허문영
2005-02	북핵문제와 남북대화: 현안과 대책 이기동, 서보혁, 김용현, 이정철, 정영철, 전병곤, 곽진오	
2005-03	6·15 남북공동선언 재조명: 이론과 실제	홍용표, 조한범
2005-04	광복 60년과 한반도: 한미관계,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문제	김근식
2005-05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로드맵: 「6자회담 공동성명」 이후의 과제	조성렬

Studies Series		
----------------	--	--

2004-01	The Successor Theory of North Korea	Kyo Duk Lee
2004-02	Nine Scenarios for North Korea's Internal Development	Hyeong Jung Park
2004-03	The Impact of Personality Cult in North Korea	Jae Jean Suh
2004-04	The Unofficial Exercise of Property Rights in North Korea	Kang-Taeg Lim and Sung Chull Kim
2004-05	A Study of the Social Control System in North Korea: focusing on the Ministry of People's Security	Hyun Joon Chon
2005-01	Strategies for Development of a North Korean Special Economic Zone through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Kang-Taeg Lim & Sung-Hoon Lim
2005-02	The Food Crisis and the Changing Roles and Attitudes of North Korean Women	Lim Soon Hee
2005-03	Evaluation of South-North Economic Cooperation and Task for Success	Young-Yoon Kim
2005-04	North Korea's Market Economy Society from Below	Jae Jean Suh
2005-05	Continuities and Changes in the Power Structure and the Role of Party Organizations under the Kim Jong-il's Reign	Hyeong-Jung Park and Kyo-Duk Lee
2005-06	The DPRK Famine of 1994-2000: Existence and Impact	Suk Lee

# 통일연구원 定期會員 가입 안내

통일연구원은 통일문제가 보다 현실적인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에게만 배포해오던 각종 연구결과물들을 보다 폭 넓게 개방하여 전국의 대형서점에서 개별구입하거나 본원의 定期會員에 가입하여 구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원의 간행물 분량이 많아 일일이 서점에서 구입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定期會員制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기회원에게는 본원의 모든 간행물(연구총서, 국문논총, 영문저널, 학술회의 총서, 판매되지 않는 수시 「정세분석보고서」 등)을 직접 우편으로 우송해드리는 것은 물론 학술회의 초청 등 회원의 권리를 부여하오니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 1. 정기회원의 구분

- 1) 일반회원: 학계나 사회기관에서의 연구종사자
- 2) 학생회원: 대학 및 대학원생
- 3) 기관회원: 학술 및 연구단체 또는 도서관 등의 자료실

## 2. 회원가입 및 재가입

- 1) 가입방법: ① 회원가입신청서를 기재하여 회비를 납부하신 入金證과 함께 본 연구원으로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이 취득됩니다.  
② 본원 홈페이지(<http://www.kinu.or.kr>)에서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신 입금증을 Fax 또는 우편으로 보내주시므로써 정기회원 자격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 2) 연 회 비: 회원자격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간입니다  
(기관회원 20만원, 일반회원 10만원, 학생회원 7만원)
- 3) 납부방법: 신한은행 온라인 310-05-006298(예금주: 통일연구원)
- 4) 재 가 입: 회원자격 유효기간 만료 1개월전 회비를 재납부하면 됩니다.(재가입 안내장을 발송)

## 3. 정기회원의 혜택

- 1)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 및 국내학술회의 등 각종 연구행사에 초청됩니다.
- 2)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학술지 「통일정책연구」와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Unification Studies를 포함하여 그 해에 발행되는 단행본 연구총서(연평균 30-35권), 학술회의 총서(연평균 5-6권), 정세분석보고서(연평균 5-10권) 등의 간행물이 무료 우송됩니다.
- 3) 본 연구원에 소장된 도서 및 자료의 열람, 복사이용이 가능합니다.
- 4) 시중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지난자료를 2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에 한함)
- 5) 저작권과 관련하여 DB서비스를 통해 압축한 자료는 제3자 양도 및 판매를 금합니다.

##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서울시 강북구 수유6동 535-353 (우편번호: 142-076)

통일연구원 통일학술정보센터 (전화: 901-2559, 901-2529 FAX: 901-2547)







